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혜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진이 시조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 윤 희

황진이 시조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강 혜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 윤 희

인 준 서

박윤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황진이 시조의 교육적 가치를 심화시키고, 황진이 시조의 독자적인 문학적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황진이 시조는 사대부 시조와는 달리 기녀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드러내며 자신의 정서를 서정적 표현하였다. 황진이의 시조도 근본적으로는 애정과 그리움이라는 주제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나 그 표현 방식 면에서는 일반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황진이 시조의 문학적 의의와 교육적 가치는 현행 7차 『문학』 교육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높은 수록 빈도를 보이며, 중요하게 학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 과정에서 황진이의 시조는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기녀 시조의 특징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황진이 시조의 독자적인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안의 제안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황진이의 시조의 효율적 교수·학습을 위해 현행 교육 과정의 긍정적 가치를 수렴하여 작품론적 관점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황진이 시조의 독자적인 특징을 학습하는 새로운 교육 방안을 작가론적 관점과 수용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모색해 보았다.

작품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황진이 시조의 교육 방안은 사대부 시조와 비교하여 내용적 측면의 차별성을 강조하였고, 일반 기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교육 방안에서는 황진이의 표현적 측면의 차별성에 대해 중점을 두

었다. 이는 현행 교육 과정에서 황진이 시조를 교수·학습하는 방법의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심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작가론적 관점과 수용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황진이 시조의 교육 방안은 현행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교육 방안으로서 황진이의 독자적인 시조 문학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모습과 여성 작가로서의 모습을 일화와 한시 작품으로 제시하여 삶과 문학과와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중 매체에서 그려지고 있는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는 내면화 단계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황진이 시조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의 모색은 황진이의 기녀 시조로서의 독자적인 시조 문학을 수용하고 창작하는 데 있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학습 활동을 제시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1
2. 선행연구 검토	4
II.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8
1. 기녀 시조의 문학 교육적 의의	8
2.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17
(1) 일반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19
(2) 황진이 시조의 교육 현황	30
III.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의 실제	42
1. 작품론적 관점에서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	43
(1) 사대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비교	44
(2)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비교	54
2. 작가론적 관점에서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	69
(1) 일화를 통한 황진이의 삶에 대한 이해	70
(2) 한시를 통한 황진이의 작가적 삶에 대한 이해	80
3. 수용론적 관점에서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	92
(1) 매체 자료를 활용한 내면화 학습	93
(2) 창작 활동을 통한 내면화 학습	100
IV. 결론	105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왕성하게 창작된 시조는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 되어 유교적 충의 이념과 규범을 중시하는 관념적이고 도학적인 시조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시조가 제한된 형식 안에서도 자신의 심정이나 관점을 응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으로 인해 사대부들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알맞은 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대부들의 시조가 점차 관습화되어 가던 시기에 등장한 기녀 시조는 기존의 사대부 시조가 갖는 관념적이고 도학적인 내용과 표현에 생기를 불어 넣고 서정시로서의 성격을 한 층 발전시켰다.

기녀들의 시조에서는 윤리와 도덕의 강조를 넘어서서 인간의 진솔한 정서를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남녀의 애정 문제까지 포함되는데, 기녀 시조의 이러한 성향은 기녀라는 신분의 특수함에서 비롯된다. 조선조 여성 중에서는 기녀만이 유독 시조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대부가 여성들은 가정 안에 갇혀 지내야 하나, 기녀들은 신분상의 의무 때문에라도 사대부 남성들의 풍류에 동석해야 하기에, 남성들의 장르인 시조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빈번하게 갖게 된 것이다.¹⁾

기녀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은 시조 창작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과 동시에 사대부 시조와는 또 다른 독자적인 의미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1) 안지영, 「기녀 시조의 시조사적 의미」, 『時調學論叢』, 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235쪽.

준다. 지배층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신분상의 고뇌와 인간적 한계는 시조 작품에 응축되어 나타나 기녀 시조만이 갖는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사대부와의 풍류에 참여하고 그들과 교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별을 전제로 한 만남이기에 본질적으로 화합할 수 없으며, 애정 관계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기녀들이 지어 부르는 시조 작품에 드러나게 되어 기녀 시조에는 애정의 문제로 귀결되는 정서의 표출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정서의 표출은 상대 남성과의 이별 후에 느껴지는 그리움과 연모의 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녀 시조가 눈물과 한숨으로 그리워하는 정서를 표출했다면, 황진이 시조는 애정과 그리움이라는 주제는 동일하지만, 드러내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 여타의 기녀 시조와는 다르다.

황진이의 시조가 사대부 시조 및 여타의 기녀 시조와 비교하여 가지는 차별성은 황진이 시조만이 갖는 독자적인 특징이며, 황진이 시조가 문학사적 의의와 교육적 가치의 측면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황진이 시조의 문학적 위상은 현행 7차 『문학』 교육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교과서 수록 빈도에 있어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 과정에서 황진이 시조의 교육 방안은 사대부 시조와의 단편적인 비교 학습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황진이 시조 문학의 독자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진이 시조의 독자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황진이 시조의 교수·학습 방안을 작품론적 관점, 작가론적 관점, 수용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론적 관점에서는 현행 교육 과정의 교과서 학습 활동의 분석을 통하여 교육적 가치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작가론적 관점에서는 작품과 작가의 관계에 주목하여 황진이 시조의 문학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

한다. 수용론적 관점에서는 작품론적 관점과 작가론적 관점의 교육 방안을 바탕으로 하여 황진이 시조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기녀 시조의 성격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기녀 시조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알아본다. 기녀 시조의 문학 교육적 의의는 내용의 측면과 표현의 측면, 문학사적 측면의 세 층위로 나누어 사대부 시조와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현행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황진이 시조의 교육 현황과 황진이를 제외한 일반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을 분석한다. 기녀 시조가 가지는 문학 교육적 의의가 현행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기녀 시조의 교육적 측면의 가치를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에 보완하여 심화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황진이의 문학 작품과 이외의 황진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황진이의 시조 문학 작품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것은 현행 『문학』 교과서에 제시된 사대부 시조 및 기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작품론적 교육 방안과 황진이의 일화와 한시를 통한 작가론적 교육 방안으로 나누어 살핀 후 대중 매체에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하여 수용론적 관점에서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른 학습 활동은 기녀 시조인 황진이의 시조의 전반적인 이해와 황진이 시조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의 연구는 학생들이 황진이의 시조를 수용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 현행의 교육적 방법에서 더 나아가 작가와 작품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더욱 심화하여 내면화 단계에 이르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리하여 비단 황진이 시조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전반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내면화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황진이의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 둘째, 황진이의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 셋째, 황진이의 시조 작품의 교육론적 관점의 연구 등이 있다.

먼저, 황진이의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이는 이병기²⁾로서 황진이의 인물됨을 평가하여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삶보다는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병기의 작가론적 연구에 뒤이어 황진이의 전기적 연구를 통하여 황진이의 생애와 작품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용숙, 황순구, 전규태, 박영신 등을 들 수 있다.

황진이의 생애는 그에 대한 정사(正史)기록이 문헌 어디에도 전하지 않아 정확한 생몰연대조차 파악할 수 없다. 이에 김용숙³⁾은 황진이의 전기적 연구를 통하여 출생과 인물됨, 임종에 대한 전기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데 기여하였고, 황순구⁴⁾는 황진이의 생애를 검토하여 그녀의 성품이 걸걸하여 남성 같고, 인물이 뛰어나고 재주가 출중하다고 밝혔다.

전규태⁵⁾는 황진이에 대한 연구를 전통설에 근거하여 출생과 생존연대, 삶의 모습을 고찰하였는데, 황진이의 전해지는 6수의 시조 중 <어저 내 일이야>,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내 언제 무신(無信)하여>를 정한을

2) 이병기, 「황진이의 예술」, 강전섭 편저, 『황진이 연구』, 창학사, 1985.

3) 김용숙, 「황진이의 전기적 연구」, 『靑坡文學』, 淑明女子大學校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會, 1960.

4) 황순구, 「黃眞伊論」, 『論文集』, 大田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84.

5) 전규태,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음조리는 시조로 <청산리 벽계수야>, <산은 넷 산이로되>, <청산은 내
뜻이오>를 자연에 빗대어 스스로의 감정을 투영시킨 시조라 분류하였다.

박영신⁶⁾은 황진이와 생애와 문학은 구분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며 출
생, 교유 남성 등에서 볼 수 있는 인생관이나 이성관 등은 황진이 문학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둘째, 황진이의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는 주로 작품의 주제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중점이 되어 이루어졌다. 주제의 탐구를 위한 대표적인 연구
로는 조운제, 김동욱, 이화형, 김흥년 등이다.

조운제⁷⁾는 동양시와 서양시의 비교론적 입장에서 황진이의 시조 6수를
하나로 묶어 각각의 시조를 한 구절로 놓고 시의 대의를 살폈고, 기교를
살핀 후 작품에 주되게 흐르는 시인의 정조를 실연한 사랑으로 간주하였
다.

김동욱⁸⁾은 허난설헌과 황진이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작품에 나타난 작자
의 심리를 비교 분석하여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주제의식을 규명하였으
며, 이화형⁹⁾은 황진이 시조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 미적 정서와 대응되면
서 그를 포괄하는 시인의 내적 의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김흥년¹⁰⁾은 황진이의 시문학이 한국 고전 시문학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 기류문학이나 여류문학으로서 단순히 기록
되는 것을 떠나 독자적인 황진이 문학으로 그 위상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황진이의 미적 가치와 작품의 본질을 찾기 위한 연구로는 김용덕과
윤영옥을 들 수 있다. 김용덕¹¹⁾은 황진이 시조의 미적 가치가 어디에 근

6) 박영신, 「황진이의 문학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7) 조운제, 「黃眞伊의 時調와 韓國 詩歌의 傳統」,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68.

8) 김동욱, 「황진이와 허난설헌」, 『현대문학』, 1995.

9) 이화형, 「황진이(黃眞伊)의 시적 진실」, 『외대어문논총』,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1997.

10) 김흥년, 「황진이 시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11) 김용덕, 「黃眞伊時調論」, 『人文論叢』, 漢陽大學校 人文科學大學, 1982.

거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운율, 문형, 시어, 이미지리, 원형, 아이러니 등의 시 구조 중심 표현에 입각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윤영옥¹²⁾은 황진이의 작품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텐션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았다. 텐션이란 많은 시나 소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劇에서 움직임에 의하여 나타나는 긴장, 흥분, 불안이라 규정짓고, ‘황진이의 시조는 그 자체가 텐션으로 짜여져 있으며, 그러한 텐션은 아이러니에 의하여 고조되고, 표현 자체는 역설적이다. 이런 점에서 시의 가장 우수한 요소를 갖추어, 단순한 남녀애정 이상의 인간현상을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외적 세계와의 충돌 없이 대상과의 화합함을 노래한 사대부들의 시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만큼 생동감 있는 인간적인 시를 창작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상진¹³⁾은 황진이의 시조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기녀 시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을 지니는가를 파악하였다. 기녀 시조로서의 한과 그리움의 정서를 유지하는 공통점을 갖는 한편 황진이가 가지는 팜므 파탈의 성향을 차별성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황진이의 시조 작품의 교육론적 관점의 연구는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나 작품론적 연구의 성과에 비해 지금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황진이의 시조 작품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교육 방안 연구는 없었으며, 황진이 시조 작품을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한 경우는 기녀 시조의 교육 방안 안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인 이현명¹⁴⁾의 연구에서는 기녀 시조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위해 황진이의 시조 5수를 제시하고 각 작품에서 드러나는 정서의 유형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 황진이의 생애에 대한 작가론적 관점의

12) 윤영옥, 「황진이 시의 tension」,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80.

13) 김상진, 「기녀 시조의 맥락과 황진이 시조의 팜므 파탈」, 박노준 편저, 『고전시가 읽어 읽기』, 태학사, 2003.

14) 이현명, 「기녀 시조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연구는 결국 황진이가 기녀라고 하는 신분적 질곡에서, 즉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간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는 황진이의 시조가 사대부 시조와는 다른 성취를 얻었으며, 그것은 기녀 시조의 일반적인 특징에 바탕을 둔 독자성을 지녔다고 요약될 수 있다. 황진이 시조의 교육론적 관점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인데, 황진이의 시조의 교육론적 접근에서는 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논의에서도 밝혀졌듯이 황진이 시조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으로서의 심성, 시대를 거스르는 개혁적인 마인드가 모두 드러나고 있어서, 현재의 자기를 찾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시대와 자아의 관계라는 관점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이다.

황진이의 시조 작품이 기녀 시조 문학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고전 시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황진이의 시조 작품을 현행 교육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작가론적 관점과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 업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황진이 시조 문학의 교육론적 관점의 연구는 학생들이 작품을 보다 심도 있고 흥미롭게 내면화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다.

II.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기녀 시조는 여성만이 지닌 섬세한 감정으로 진실하면서도 절실하게 사랑을 노래한 까닭에 더욱 감동적이다. 여성 특유의 우아한 정서를 전달하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시적 언어로 발전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기녀 시조가 현행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되고 있는지를 황진이 시조 문학과 일반 기녀 시조 문학을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는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을 보완하여 황진이 시조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1. 기녀 시조의 문학 교육적 의의

시조의 창작, 향유, 전승에 있어서 기녀들이 차지한 문학사의 의의로는 문학을 재도지기(載道之器)로 여긴 사대부들과 달리, 진솔하고 절실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시조의 작품세계를 다양화 한 기여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녀 시조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내용의 측면과 표현의 측면, 문학사적 측면의 세 층위로 나누어 사대부 시조와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하고자 한다.

기녀 시조의 특징을 문학사적 의의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첫째, 내용의 측면에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표현의 즐거움을 누리는 서정적 경향이 강하며,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드러내었다는 점이다. 조선 시대 시조가 대체로 남성 전유물이었으며, 특히 조선 전기의 시조들은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거나 이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

된 면이 강했다면, 이에 반해 기녀들에 의해 창작된 시조들은 고려속요의 정조를 이어가면서,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황진이로 대표되는 기녀들의 시조는 정서를 곡진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사대부들의 시조가 기녀 시조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교훈적인 시조와 자신들의 이념을 드러내기 위한 관념적인 시조라면, 기녀들의 시조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표현의 즐거움을 누리는 서정적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녀들의 작품은 그들의 사랑이 지속적일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¹⁾

이와 같은 문학 교육적 가치를 갖는 기녀 시조는 현행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도 반영되어 있는데, 기녀 시조의 교과서 수록빈도를 제7차 『문학』의 고시조 작가 계층별 수록빈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표-1> 기녀 시조의 교과서 수록빈도

계층	왕	사대부	기녀	가객	미상	총계
수록횟수 (작품수)	0	193(62)	40(9)	18(11)	52(18)	303(100)
비율(%)	0	63.70	13.20	5.94	17.16	100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가운데 기녀의 작품은 총 9편으로 40회나 수록되어 있어 13.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작가는 황진이(黃眞伊), 홍랑(紅娘), 계랑(桂娘), 한우(寒雨) 4명으로 나타나는데, 매화(梅花), 송이(松伊) 등의 작가들은 제외하였지만, 대표적인 기녀 작품은 거의 수록하였다. 고시조 전체에서 기녀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행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빈도는 매우 높게 나타남을 확인

1) 김대행, 「고전시가」, 『한국문학강의』 길벗, 1994, 210쪽.

2) 김덕현, 『시조 문학 교육론』, 박이정, 2004, 192-193쪽.

할 수 있다. 본문 수록이나 예문으로 등장한 기녀 시조의 대부분은 황진이, 홍량, 계랑의 작품이 대부분이지만, ‘더 입을 작품’으로 소개되는 경우를 포함하면 기녀 시조의 수록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황진이를 필두로 하여 홍량, 계랑 등에 의해 창작된 기녀 시조는 사대부 시조의 품격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애정과 이별 문제를 참신한 발상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기녀와 사대부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맺어지기 어려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속에서 느끼는 애절한 그리움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절실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기녀 시조의 내용의 특징은 역시 연인에 대한 애정과 기다림을 노래하는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인데, 다음의 황진이, 홍량, 계랑의 대표적인 시조 작품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冬至스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靑丘永言』)

이 작품은 황진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입을 사모하는 노래인 동시에 기막힌 은유적 표현과 시적 발상을 보여주는 시조이다.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긴 날로 이 긴 밤 시간을 잘라내어 이불아래 넣었다가 임이 오신 밤에 모두 퍼내리라는 독특하고도 절묘한 생각으로 입에 대한 그리움과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입을 그리는 마음을 ‘서리서리’, ‘구뵈구

뷔'라는 감각적인 의태어로 표현하고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전환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뿔버들 갈희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딤
자시논 쫘맛과 심거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靑丘永言』)

조선 선조 때 기녀 홍량은 시인 고죽 최경창과 헤어지면서 이 노래와 버들가지를 정표로 전했다고 한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파릇파릇 움터 나오는 새 잎에 비유한 것이 애절하다. 이 시조는 홍량의 임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임을 떠나보내는 슬픈 마음이 담긴 작품으로, 임과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이므로 창가의 버들잎을 자신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잊지 말아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梨花雨 훗썩릴제 울며 즘고 이별흔 님
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다.

(『靑丘永言』)

조선 명조 때의 기녀 계량은 '이화우'와 '추풍낙엽'에 이별의 정서를 담아, 임과의 재회를 염원하는 여성의 섬세한 감각을 보여 준다. 촌은 유희경의 사랑을 받다가 유희경이 서울에 올라가 소식이 없자 이 시조를 지은 후에 수절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 작품에 그러한 계량의 마음이 잘 나타난다. 배꽃이 비가 내리듯 떨어지던 날에 헤어지기 서러워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어느새 가을이 깊어 낙엽이 떨어지는데 임께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꿈속에 오셨다가 가시는 임이어서 연인과의 사모의 정을 이기지 못하는 심정이 노출되어 있다.³⁾

위의 황진이, 홍량, 계랑의 3수의 시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솔직한 정서를 표현하였다. 애정과 그리움의 정서를 심도 있게 형상화하였고, 사대부 시조에서 지양되어 온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드러내었다. 사대부 시조가 흔히 관념의 표출에 그치는 데 비해, 기녀들의 시조는 숨김없는 서정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문학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표현의 측면에서 본 기녀 시조의 교육적 의의는 기녀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각적 인식을 통해 발견된 시어를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황진이를 비롯한 기녀 작가들은 한문이 주된 자리를 잡고 있던 당대에 천시 당하던 우리말로써 문학 작품화를 시도한 작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녀 시조에서 순수 우리말의 사용빈도가 높은 이유는 기녀들이 당대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한문 어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사대부들에 비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점 때문이다.

다음은 문향이라는 기녀의 시조인데, 시어 전체가 순수 우리말로 된 기녀 시조의 특징을 보여준다.

오냐 말 아니짜나 실커니 아니 말라
하늘 아래 너 뿐이면 아마 내야 흐려니와
하늘아 다 삼겡스니 날 쥘 인들 업스라

(『校本歷代時調全書』)

3) 김명희, 「기녀문학의 특질」, 『時調學論叢』, 第13輯, 韓國時調學會, 1993, 130쪽.

이 시조는 문향이 선조 37년에 상사(上使)로 중국에 다녀오던 송포 이각을 만나 사귀다가 실연하고 지은 시조이다. 그와 헤어지게 되자 실연의 아픔을 오기로 노래한 것이다. 하늘 아래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겠느냐면서 으스스대지 말라는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인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시어 전체가 순수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는 보기 드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기녀 시조는 이처럼 순수 우리말의 사용이 폭 넓게 나타난다. 문향의 이 작품처럼 전체가 순수 우리말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녀 시조는 시행 중에 의성어, 의태어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황진이의 시조 <동지사달 기나긴 밤을>에서 나타나는 시어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冬至스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靑丘永言』)

일반적으로 다른 기녀 시조에서의 ‘밤’은 임을 기다리는 상황의 밤이기 때문에 슬프거나 절망적인 정서가 대부분을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황진이의 위의 시조에서는 ‘밤’에 대한 인식이 어둡거나 절망적이지 않다. 물론 위의 시조에서도 ‘동짓달 밤’은 ‘임’이 부재한 길고 긴 밤이다. 하지만 화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 그러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화자는 시간을 절단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 보인다. 이러한 극복 행위는 ‘버혀 내여’, ‘서리 서리 너헛다가’, ‘구뵤 구뵤 퍼리라’와 같은 역동적인 어휘들에 의해 표현되고 있으며, 이 어휘들에 의해서 시 전체에 역동성과 활기가 부여된다. 시간의 한 허리를 잘라내

고, 서리서리 넣고, 굵이굵이 퍼졌다고 한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작자가 거기에 항거하여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⁴⁾ 위 시조에서 추상적인 시간의 단위는 시적 화자에 의해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마치 시간이 눈에 보이는 대상처럼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공간화한 감각적 표현 기법을 통해 절망을 딛고, 기쁨의 정서를 스스로 획득하는 시인의 적극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의 섭리를 스승으로 삼았던 도학자들의 사고에서는 떠오를 수 없는 과격이었고 시간 극복의 적극적 의지가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⁵⁾

다음 매화의 시조를 통해서도 사대부 시조와의 표현과 비교하여 기녀 시조의 표현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梅花 넷 등걸에 春節이 도라오니
 넷 휘던 가지에 휘엄죽도 헛다마는
 春雪이 亂粉粉하니 필동말동 헛여라

(『靑丘永言』)

매화가 이제는 사랑하고 질투할 나이가 지나서 이 시조를 썼기 때문에 늙어가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영원한 이상인 불로(不老)에 대한 좌절을 그리는데 ‘필동말동’이라는 표현을 통해 더욱 애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대부들이 매화가 눈 속에서 피는 모습을 깨끗한 절개를 지닌 신의 있는 모습으로 파악했다면, 기녀 매화는 매화가 눈 속에서 움트는 시기를 자신의 상황과 연관지어 참신하게 파악하였으며, 그 어휘 선택에서부터

4) 김일렬, 「時調에 나타난 時間意識 - 黃眞伊·李滉·李賢輔의 작품을 대상으로」, 『韓國詩歌文學研究』, 신구문화사, 1983, 221쪽.

5) 서대석, 「시조에 나타난 시간의식」, 『韓國詩歌文學研究』, 신구문화사, 1983, 216쪽.

재미있고 생기발랄하다. 초장에서 작자는 ‘매화’가 봄이 되어 자연히 피어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중장에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으로 이어지고, 종장에서는 봄눈이 심해져 매화가 피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즉 추위를 이겨내고 당연히 피어나는 매화가 아니라 어떤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피지 못하는 매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춘설’이라는 젊은 기녀와 이제는 퇴기가 되어버린 자신의 상황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매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비유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⁶⁾

이처럼 기녀들은 어떤 정서를 표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시어를 아름답고 정결하게 갈고 닦았다. 기녀 시조는 자신들의 진솔한 감정을 실어 사대부와는 다른 시어의 사용으로 새로운 미학을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표현의 측면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셋째, 문학사적 측면에서 본 기녀 시조의 교육적 의의는 기녀 시조가 시조의 작자층의 확대로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양반 사대부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 출현한 시조는 이후 성장, 발전, 쇠퇴기라는 단계를 거쳐 현대 시조에 이르고 있다. 형성 초기와 성장기에는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어 이루어 졌다면, 임진왜란 후 시조의 발전기는 여향인등과 전문 가객에 의한 시대로 변하게 된다. 기녀들의 시조는 이러한 전반기 사대부들의 시조와 후반기 여향인들의 시조의 교량 역할로서 시조사에 등장하게 된다. 가객과 평민층의 시조 애호가들이 사대부들과 달리 시조를 절실한 자기표현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진실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기녀 시조의 내용과 표현에서 나타난 특징의 영향이며, 이러한 영향이 시조의 제재와 주제의 다

6) 윤민주, 「기녀 시조 시어의 특성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33쪽.

양화라는 시조사의 변화를 가져와 시조 문학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시조사의 전반기에 속하는 사대부들의 시조가 도학적이고 유학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기녀 시조는 그들의 자유로운 신분적 위치로 인하여⁷⁾ 보다 인간적인 정서와 감정을 노래한다. 이것이 임진왜란 후 더 한층 발전하여 세상사의 다양한 모습을 읊은 평시조뿐만 아니라 변이형의 엇시조, 사설시조로 변모하여 나타난다. 시조 문학의 작가층 또한 전대의 사대부 일색에서 여향인과 평민 백성들을 포함한 전체 계층으로 넓게 포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기녀 시조는 인간의 정서를 솔직 담대하게 아름다운 순우리말 표현하였다는 특징과 시조 작가 층의 확대와 더불어 시조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기녀 시조의 문학 교육학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7) 이화형은 기녀들은 신분상 미천한 부류에 속하였기에 오히려 일반 여성에 비해 생활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특수한 계층으로, 신분상의 특성을 지니고 사대부 남성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예민한 감수성을 한시나 시조 등의 문학을 통해 적절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녀 시조를 통해 본 인간적 한계 인식과 극복 의지」,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00, 91쪽.

2.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녀 시조가 내용적, 표현적, 문학사적 측면에서 문학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의의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녀 시조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교육 과정에 드러난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황진이의 시조 작품과 황진이를 제외한 일반 기녀 시조 작가 중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홍량, 계량, 한우의 시조 작품의 교육 현황 양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기녀 시조의 각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기녀 시조의 교육적 의의를 알아보고,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찾으려 하겠다.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양상은 위에서 언급한 교과서 수록빈도 양상에서 나타나듯이 현행 『문학』 교과서에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녀 시조가 사대부 시조와 차별되는 문학 교육적 의의가 반영된 것을 뜻한다. 먼저, 현행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녀 시조 수록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기녀 시조의 교과서 수록 실태

시대	작품명	작자	형식	수록 횟수	주제
조선 전기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	황진이	평·단시조	13회	그리움
조선 전기	<어저 내 일이야>	황진이	평·단시조	7회	그리움
조선 전기	<내 언제 무신(無信)하여>	황진이	평·단시조	3회	체념

조선 전기	<청산은 내 뜻이오>	황진이	평·단시조	2회	그리움
조선 전기	<청산리 벽계수야>	황진이	평·단시조	2회	유혹
조선 전기	<산은 냇 산이로되>	황진이	평·단시조	1회	무상
조선 전기	<뫋버들 갈희 것거>	홍 랑	평·단시조	6회	이별의 한
조선 전기	<이화우(梨花雨)훗뿌릴 제>	계 랑	평·단시조	5회	그리움
조선 전기	<어이 얼어 잘이>	한 우	평·단시조	1회	유혹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기녀들의 시조를 대표하는 황진이의 시조 작품이 6수, 홍랑, 계랑, 한우의 시조 작품이 각 1수씩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황진이의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은 그 수록 횟수가 13회나 된다. 18종의 『문학』 교과서의 대다수가 황진이의 시조를 교육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황진이의 시조 작품에 비해 일반 기녀 시조들의 작품이 다양하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홍랑과 계랑의 시조 작품의 수록 빈도는 각각 6회, 5회로 그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시대는 조선 전기의 시조로서 당시 사대부의 시조의 형식은 평시조이며 단시조이다. 기녀 시조 역시 사설시조나 연시조와 같은 변형시조는 한 수도 없고, 오직 평시조의 정형시만 전하고 있다. 평시조는 양반계급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또 그들에 의하여 전용으로 향유되었던 형식으로 기녀들도 역시 그 형식만 남겼다고 하는 것은 기녀들의 시조가 양반들의 시조와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녀의 시조가 사대부의 시조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사대부 시조와 마찬가지로 형식면에서는 정형성을 유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제를 살펴보면, <산은 냇 산이로되> 시조의 주제가 무상인 것을 제외하면 다른 시조 작품의 주제는 대부분 연인에 대한 사모와 그리움, 이별의 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녀라는 신분의 특수함으로 인하여 <청산리 벽계수야>, <어이 얼어 잘이>와 같은 시조에서는 유혹이라는 주제도 드러나게 된다. 기녀 시조에서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을 표현하는 시조가 주를 이룬다. 연인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원망과 정한을 표현하고, 연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여 유혹하는 시조가 주를 이루지만 그의 주된 정서는 연인에 대한 자신의 지조 있는 사랑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기녀 시조가 현행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어떠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황진이와 일반 기녀 시조 작가 중 홍량, 계량, 한우가 수록된 교과서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행 교육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교육적 가치의 의의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적 가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황진이의 시조 작품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1) 일반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본장에서는 홍량, 계량, 한우의 시조 작품이 수록된 교과서의 학습 단계와 학습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각 시조 작품에 따라 임의로 선정한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일반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홍랑의 <뫼버들 갈희 것거>의 교육 현황

홍랑(紅娘)은 조선 선조 때의 함경도 경성(鏡城) 기녀로 삼당시인(三唐詩人) 최경창과 정이 깊었다고 전해진다.

홍랑의 <뫼버들 갈희 것거>의 시조도 선조 6년 고죽 최경창이 북해평사(北海評事)로 경성에 가 있을 때 친해진 홍랑이 이듬해 최경창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영흥까지 배웅하고 함관령에 이르러 저문 날 내리는 비를 맞으며 이 노래와 버들가지를 함께 보냈다고 한다. 이 시조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는 시조로, 비에 젖은 촉촉한 가지에 파릇파릇 움터 나오는 새 잎을 통해 시각적으로 청순가련하고 섬세한 여인의 이미지가 풍긴다.

이 홍랑의 <뫼버들 갈희 것거>의 현행 18종 『문학』 교과서의 교육 현황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홍랑의 <뫼버들 갈희 것거>의 교육 현황

번호	교과서	단원명	학습 단계	학습내용
①	지학 (권)	(하) I-2. 조선 시대의 문학	본시 학습	· 홍랑을 위로하는 편지쓰기 · 홍랑 시조에서 작가 심정을 대표하고 있는 것 말하기
②	형 설	(하) I-3. 조선 전기의 문학	본시 학습	· 뫼버들의 의미, 조선 전기 시조의 특징 말하기
③	교학 (김)	(하)Ⅷ-3. 문학의 다양화와 담당층 의 확대	본시 학습	· 홍랑의 어조를 독백의 입장에서 활용가능성 토론하기
④	중 앙	(상)Ⅲ-1 시의 감상과 수용	본시 학습	· 홍랑 시조의 화자가 되어 뫼버들을 동봉하여 편지쓰기

⑤	칭 문	(상)Ⅲ-2. 시의 언어와 운율	전시 학습	· 소리 내어 읽을 때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 생각하기
⑥	디 딤	(상)Ⅲ-1. 서정 문학의 수용과 창작	심화 학습	·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감상하고 이 시조 작품에 등장하는 ‘임’의 의미 분석하기

홍량의 <뫓벼들 갈히 것거>는 총 6권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지학(권)] 과 [형설], [교학(김)], [중양]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본시 학습 활동의 학습 단계에서 학습된다. 본시 학습 활동에서의 활동은 조선 전기의 시대사의 흐름에서 사대부의 시조와 비교하여 기녀 시조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차별성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홍량의 시조 <뫓벼들 갈히 것거>의 학습 활동 역시 홍량의 심정을 알아보고 그 표현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뫓벼들의 의미를 찾아보거나(형설), 홍량 시조에서 작가 심정을 대표하고 있는 것 말해보기(지학(권))와 같은 활동이 제시된다.

[칭문]의 경우는 【들여가기】 전시 학습 단계에서 학습된다. 이는 ‘시의 언어와 운율’이라는 단원 안에서 시조를 읽을 때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를 홍량의 시조를 들어 시작하고 있다.

[디딤]의 『문학』 교과서에서는 【시야 넓히기】 심화 학습 단계에서 학습된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감상하고 홍량의 시조 <뫓벼들 갈히 것거>의 임의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하여 시어의 다양한 특징을 이해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현행 7차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홍량의 <뫓벼들 갈히 것거>를 6권의 『문학』 교과서 중 조선 시대 문학의 특징을 본시 학습하는 [지학(권)]의 학습 활동 분석을 통하여 홍량 시조의 현행 교

육 양상과 그 의의를 살펴보겠다.

[지학(권)] 에서 홍량의 시조 <뫓버들 갈히 것거>는 조선 시대의 문학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단원에 <三冬에 뵈웃 님고>, <말 업슨 靑山이오>, <훈민가>,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뵈혜>의 시조 4수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작품을 통해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의 갈래별 특징을 알고, 사대부의 시조, 기녀의 시조, 평민의 시조를 수록하여 시조의 작자층과 창작 시대에 따른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활동 목표를 학습하기 위해서이다.

[지학(권)] 의 홍량의 <뫓버들 갈히 것거>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⁸⁾

【이해하기】 : 1. 홍량의 시조에서 작자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홍량의 시조에서 ‘뫓버들’을 찾아봄으로써 입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분신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작자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제재를 통해 입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 학습 활동이다.

【확장하기】 : 2. (가)는 홍량의 시조에 얹힌 일화를 말해 주는 글이고, (나)는 비슷한 시대에 뛰어난 문학 작품들을 남긴 기녀 이매창의 한시를 번역한 것이다. 이 두 글을 참조하여 홍량을 위로하는 짤막한 편지를 써 보자.

이와 같은 활동은 작품의 정서를 내면화하기 위한 학습 활동으로 작품의 정서와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8)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하)』, 지학사, 2004, 57-59쪽.

하나의 지문에 홍량의 시조에 얽힌 일화와 이매창(계량)의 한시를 번역한 자료를 주고 홍량을 위로하는 짙막한 편지를 쓰도록 하는 것은 사대부의 시조에 비하여 진솔한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에 중점을 두고 기녀 시조의 공통적인 정서를 찾아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을 내면화하는 학습에 활용된 것이다.

홍량의 <뫓버들 갈히 것거>는 [지학(권)] 조선 시대의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시조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녀 시조의 작품으로서 수록되어 있으며,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 진솔한 감정의 표현으로 사대부 시조와의 차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교육되고 있었다.

2) 계량의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의 교육 현황

계량(桂娘)은 조선 시대의 전라북도 부안(扶安)의 기녀로 가사(歌詞), 한시(漢詩), 시조(時調), 가무(歌舞), 현금(玄琴)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한 예술인으로 알려져 있다.

계량의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는 당대의 시인이며 현사였던 촌은 유희경과 관련이 있는 시조로서 정이 들었던 유희경이 서울로 돌아간 후 소식이 없게 되자 자기 혼자 잊지 못하는 그리움을 절실하게 그려낸 시조이다.

‘이화우(봄)’와 ‘추풍낙엽(가을)’은 서로 대비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임과 헤어져 있는 시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화자의 슬픈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절실하게 보여준다.

이 계량의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의 현행 18종 『문학』 교과서의 교육 현황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계량의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교육 현황

번호	교과서	단원명	학습단계	학습내용
①	한국 교육 미디어	(하)V-3. 한글 창제와 국문 문학의 발달 (조선 전기의 문학)	본시 학습	· 계량 시조에 나오는 ‘추풍낙엽’이 환기하는 정서 설명하기 · 송순과 계량 시조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차이 · 계량 시조의 시적 화자 입장에서 ‘임’에게 편지쓰기
②	상문	(하)V-1. 개인의 삶과 문학	본시 학습	· <브름도 쉬여 넘는 고기>와 대비하여 정서와 태도의 공통점, 차별성 이해하기
③	민중서림	(하)I-3. 문학문화의 역사성	전시 학습	· 시조를 낭송하고 화자의 정서 상상해보기 · 내용과 형식, 표현의 측면에서 <한림별곡>, 정지용의 <카페 프란스>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별성 찾아보기 · 같은 운문 문학이면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말하기
④	중앙	(상)III-1. 시의 이해	전시 학습	· 제시된 시의 심상이 주제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 알기
⑤	두산	(하)IV-4. 한국 문학의 맥락	심화 학습	· 이 작품의 정서가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생각하기

계량의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는 현행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중 총 5권에 수록되어 있다. 학습 단계는 [한국교육미디어]와 [상문]에서는 본시 학습 활동에서, [민중서림]과 [중앙]에서는 전시 학습 활동에서 학습되고 있다. [두산]의 경우에는 심화 학습 활동 단계에서 학습된다. 계량의 시조가 본시 학습 활동의 단계뿐만 아니라 전시 학습 활동 단계에서 학습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녀 시조가 전시 학습 활동 단계에서 사대부 시조에 비해 화자의 정서를 상상하고 주제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현행 7차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계량의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를 5권의 『문학』 교과서 중 조선 전기의 시조 양상을 본시 학습에서 학습하는 [한국교육미디어] (이하 [한교])의 학습 활동 분석을 통하여 현행 교육 양상과 그 의의를 살펴보겠다.

[한교]에서 계량의 시조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는 조선 전기의 시조 양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송순의 <십년을 경영하야>와 두 시조만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기녀 시조를 수록할 때 사대부 시조 여러 수와 혹은 사설시조와 함께 수록하는 것에 비해 [한교]의 경우는 사대부 시조와 기녀 시조만을 제시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교]의 계량의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⁹⁾

【이해하기】 : 2. 다음 시조와 관련하여 계량의 시조에 나오는 ‘추풍낙엽(秋風落葉)’이 환기하는 정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계량의 시조와 황진이의 <내 언제 무신(無信)하야> 시조와 관련하여 ‘추풍낙엽’이 환기하는 정서에 대한 설명을 유도하는 학습 활동이 제시된다. 이는 두 작품은 모두 기녀 시조로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감각적 언어를 활용하여 표현한 시조이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파악해봄으로써 모두 시적 자아의 쓸쓸한 정서를 환기시키는 상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다.

3. 송순의 시조와 계량의 시조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보자.

9)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하)』, 한국교육미디어, 2003, 105-106쪽.

이것은 사대부 계층의 의식과 기녀 계층의 의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자연관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다. 사대부 계층에게 있어 자연은 안빈낙도의 이념이라든지 자연 합일의 경지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이었으나 기녀 계층의 시조에서 자연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활용되는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송순의 ‘청풍’과 계랑의 ‘추풍’이 환기하는 정서의 차이는 이러한 데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사대부 시조와 기녀가 가지는 자연관의 차별성을 알 수 있으며 사대부 시조와 비교하여 기녀 시조의 특징을 익힐 수 있다고 본다.

【확장하기】 : 3. 계랑의 시조에 나오는 시적 화자의 입장에 서서 ‘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보자.

홍랑의 시조 <뫓머들 같히 것거>와 같이 편지를 써보는 활동이 제시되는데, 홍랑의 시조가 수록된 [지학(권)]에서는 작가 ‘홍랑’에게 써보는 활동이라면, 계랑의 편지 써보기는 시적 화자의 입장이 되어 ‘임’에게 편지를 써 보는 활동이 제시된다. 기녀 시조의 학습 활동에서 ‘편지 써 보기’ 활동이 자주 제시되는 이유는 기녀 시조가 사대부들의 관념적인 세계와는 달리 남녀 간의 사랑과 정한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여성들의 섬세한 감각과 정서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솔직한 애정과 그리움의 표현은 학생들이 작품을 수용하고 창작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녀 시조가 갖는 특성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데 있어서 공감하도록 하며, ‘편지 써 보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표현 할 수 있다고 본다.

계랑의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는 [한교]에서 송순의 작품과 함께 조선 전기 사대부 시조와 기녀 시조를 비교해 보는 작품으로 수록되

어 있으며, 자연관의 차별성을 비롯하여 계층에 따른 정서의 표현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되고 있었다.

3) 한우의 <어이 얼어 잘이>의 교육 현황

한우(寒雨)는 선조대의 평양의 기녀로서 시조 한수가 《해동가요》에 전하고 명기 9인에 속한다고 한다.

한우의 <어이 얼어 잘이>¹⁰⁾는 임제의 <한우가(寒雨歌)>¹¹⁾에 대한 화답가(和答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제가 한우의 재색에 반해 한우를 유혹하는 내용의 시조를 짓자, 한우가 <어이 얼어 잘이> 시조로 화답하여 임제의 마음을 승낙하였다는 것이다. 얼어 자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가지 말라는 의미이고 종장의 ‘찬비’는 한우를 의미하는 중의법으로 쓰인 것이다.

<표-5> 한우의 <어이 얼어 잘이>의 교육 현황

번호	교과서	단원명	학습 단계	학습내용
①	디딤	(하)II. 즐거움을 위해 노래하기	창작의 실제	· 임제와 한우의 화답시를 예로 ‘기러기야 말 들어라’ 시조에 화답하는 시조를 릴레이 형식으로 쓰기

10) 어이 얼어 자리 므스 일 얼어 자리
駕鴛枕 翡翠衾을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찬비 마자시니 녹아 잘까 호노라.

11) 北窓이 몹다커늘 雨裝 업씨 길을 난이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맛갓시니 얼어 잘까 호노라.

한우의 <어이 얼어 잘이>는 [디딤(하)]에만 수록되어 있는데, [디딤(하)]의 경우는 기녀 시조의 본시 학습 활동 빈도가 다른 교과서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¹²⁾

한우의 시조는 【창작의 실제】의 단계에서 화답시의 예로 임제와 한우의 시조가 제시되었다. 이 두 시조의 화답시의 성격을 바탕으로 ‘대한민보’의 <기러기야 말 들어라>의 시조를 릴레이 형식으로 짓는 학습 활동이 제시된다.

[디딤(하)]의 한우의 <어이 얼어 잘이>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³⁾

【창작의 실제】 : 1. 시조는 즉흥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노래에 대한 화답으로 부르기도 했다. 다음의 두 시조가 한 예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에 제시한 시조에 대해 화답하는 시조를 릴레이 형식으로 지어서 게시판에 게시해 보자. 형식은 평시조, 엇시조, 사설 시조 등 무엇이든 가능하다.

[디딤(하)] 학습 활동에서는 임제와 한우의 화답시를 예로 들어 ‘대한민보’의 <기러기야 말 들어라> 시조에 화답하는 시조를 릴레이로 지어 보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릴레이 시조 짓기는 정형시 양식을 이용하여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시조를 짓는 것이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조 짓기의 예로 임제와 한우의 시조가 제시된 것은 시조가 즉흥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노래에 대한 화답을 부르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 학습 활동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우와 임제의 화답시를 통해 문학이

12) 디딤(하) ‘Ⅱ. 문학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대단원, ‘3. 조선 시대의 문학’의 중단원, ‘(1) 조선 시대의 문학’ 소단원 본문에는 황진이와 <동지스달 기나긴 밤을>이, [시야 넓히기] 학습 활동에는 <어저 내 일이야>가 수록되어 있다.

13)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하)』, 디딤돌, 2003, 215쪽.

어렵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공유하고 정서를 나누는 즐거운 활동을 알게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시조의 예는 사대부와 기녀와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기녀 시조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본시 학습 활동에서 제시된 방법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황진이를 제외한 일반 기녀 시조 작가 중 홍량, 계량의 시조는 현행 7차 『문학』 교육 과정에서 조선 시대의 시조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대부 시조와의 차별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학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우의 시조는 임제의 시조와 함께 창작의 실제에 대한 예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일반 기녀 시조의 현행 교육 방안은 조선 시대의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대부 시조와의 차별성을 비교하도록 하여 기녀 시조의 내용적, 표현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교육되고 있다. 이는 일반 기녀 시조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에는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학습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 사대부 시조와 기녀 시조를 비교하여 주제나 체제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의 차별성을 찾을 때, 기녀 시조가 사대부 시조에 비해서 남녀 간의 애정이나 이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시조에 인간적 정서를 담았다는 특징을 강조한다. 이것은 기녀 시조인 황진이의 시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황진이의 시조를 사대부 시조와 비교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 할 때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에서 기녀 시조의 특징을 기녀 시조와 사대부 시조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학습하는 활동에 비하여 기녀 시조끼리의 비교 학습 활동은 학습 활동의 문항이나 ‘더 읽어 보기’등의 보충 자료로만 제시하고 있다. 사대부 시조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못지않게 기녀 시조만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을 찾아

보는 활동도 기녀 시조의 특징을 학습하는데 유의미한 활동이라 생각되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일반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양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황진이 시조 문학의 현행 교육 양상을 살펴보고, 황진이 시조 문학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의 모색 할 때 사대부 시조 및 일반 기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학습 활동을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에서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황진이 시조의 교육 현황

황진이(黃眞伊)는 조선 시대의 명기(名妓)로 기명은 명월(明月)이다. 황진이의 생애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간접사료인 패설류 문헌 이덕형의 『松都記異』, 김이지의 『中京誌』, 김택영의 『崧陽耆舊傳』, 『韶護堂集』, 허균의 『識小錄』, 김시민의 『朝野彙言 卷3』 등을 통해 그 생애를 추측할 뿐이다.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황진이의 신분에 대해 황진사의 서녀라는 설¹⁴⁾과 맹인의 자식이라는 설¹⁵⁾이 있다. 황진이의 아버지는 개성에 사는 황

14) 『松都記異』

眞伊者 松都名娼也, 母玄琴 頗有姿色 年十八 浣布於兵部橋下, 橋下有一人 形容端好 衣冠華美 注目玄琴 或笑或指, 玄琴心動 其人 仍忽不見. 日已向夕 漂母盡散 其人 悠來橋上 倚柱長歌 歌竟求飲, 玄琴 以瓢盛水而進 其人 半飲 而笑而還與, 曰「汝且試飲之。」乃酒也. 玄琴 驚異之 因與媾歡 遂生眞娘. 色貌才藝 妙絕一時 歌亦絕唱 人號爲仙女.

『中京誌』

眞之母 眞玄琴 浣紗於兵部橋下 一有少年 嬉謔而去 薄暮又來 清水 玄琴固與之 水化爲酒 仍成共歡 扛其姓名不告而去 意以爲仙人 果有娠生眞 產時 異香滿室 三日不再齋之 則是仙女 有何姓黃耶.

『韶護堂集』

黃眞子 中宗時人 黃進士庶女也 眞母玄琴 飲水於兵部橋下 感而孕眞 乃舉室中有異香者三日.

15) 『朝野彙言』

眞娘 開城盲女之子.

『識小錄』

眞郎開城盲女之子 性個儻類男子 工琴善歌.

진사이며 어머니는 맹인이며, 기녀였을 것으로 보이며, 양반인 아버지에게서는 문학적인 소질을 이어받아 그녀의 예술성이 뛰어났으며 맹인이며 기녀인 어머니에게서는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잘 부르는 음악적 소질을 이어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황진이가 기녀가 된 동기에 대해서는 이웃집 서생이 홀로 그를 사모하다가 병이 되어 죽은 사건 때문에 기녀가 되었다는 설이 잘 알려져 있으나, ‘천자수모(賤子隨母)’에 의해 어머니의 신분을 이어 받는 사회적 상황과 조선 시대 여인들에게 강요되어 왔던 윤리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류 사회가 그녀의 성품과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녀를 기가(妓家)에 입적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황진이의 생존 연대는 불확실하며 단지 고증에 의하여 연산군 말년 경(1502)에 출생하여 가정 초(중종 17-18년경)에 한창 꽃다운 명성을 날리고 중종 35년경(1540)에 4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 죽은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¹⁶⁾

황진이는 시조 창작의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한 기녀라고 할 수 있는데¹⁷⁾ 뛰어난 재능과 발랄한 개성을 자랑하며 여러 명사들과 어울렸다. 기녀가 갖추어야 할 기예에 두루 능해 한시도 잘 지었지만 시조는 더욱 뛰어난 여성 작가였다. 사대부는 생각 할 수 없었던 표현을 개척해 관습화 되어가던 시조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시조 창작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황진이 시조 문학의 위상에 맞게 기녀 시조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대부분의 현행 7차 『문학』 교과서에서는 황진이의 시조 6수를 수록하고 있으며, [교학(김)] 과 [형설] 출판사의 『문학』 교과서를 제

16) 김정미, 「황진이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28쪽.

17) 조동일, 「조선문학통사 2」(제4판) 지식산업사, 2005, 354쪽.

외하고는 황진이 시조의 시조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 중 18종 『문학』 교과서의 황진이 시조의 수록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황진이 시조의 수록 실태

작 품	횟수	수록 교과서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13회	천재, 디딤, 금성, 두산, 교학(구), 문원, 상문, 대한, 민중, 블랙, 청문, 태성(2회)
<어저 내 일이야>	7회	한교, 디딤, 민중, 중앙, 블랙, 천재, 청문
<내 언제 무신(無信)하여>	3회	민중, 한교, 지학(박)
<청산은 내 뜻이오>	2회	중앙, 두산
<청산리 벽계수야>	2회	두산, 지학(권)
<산은 넷 산이로되>	1회	두산

현행 교육 과정에서 수록된 시조 작품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작품은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인데 16종 교과서에 13회 수록되었다. 이 시조는 제 5·6차 교육과정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높은 작품이었다. 이 시조의 수록 빈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조선 전기의 사대부 시조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화적 성격이 강한 반면, 진솔한 인간적 정서를 아름다운 언어로 잘 형상화한 표현미 때문이다. 즉, 숙명적 기다림에 겨운 이별의 한(限)을 초극하는 표출로서, 가장 길고 지루한 동짓달 밤의 시간을 잘라내어 이불 속이라는 공간에 축소시켜 넣었다가 임과 함께 할 시간을 연장시킨다는 표현이다. 동짓달 밤이라는 추상적인 시간

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가시화, 공간화 하여 자르고, 이불 속에 넣고, 편다는 발상이 참으로 돋보인다.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시간을 심리적으로 단축시켜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임과 함께 지내는 밤을 연장 내지 확대시키는 초월의식이 표현미로 드러난다.

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동짓달 지나긴 밤과’와 ‘어른님 오신날 밤’은 부정과 긍정의 시간으로 대비된다. 이러한 대비는 임의 부재 공간을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시적 상상 속에서 찾고 있다. 또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움에 ‘서리서리’와 ‘구뽀구뽀’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간절함이 응축되어 전달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황진이 시조가 보여주는 뛰어난 표현법은 당대는 물론이고 시대를 뛰어 넘어 고전 문학의 예술적 가치와 표현 교육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¹⁸⁾

이에 본장에서는 황진이의 시조가 현행 『문학』 교과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디딤], [두산], [중앙] 출판사의 단원의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내용을 분석해보겠다.

1) [디딤(하)] 의 <동지사들 지나긴 밤을>의 교과서 분석

[디딤(하)] 에서 황진이의 시조 <동지사들 지나긴 밤을>은 ‘II. 문학작품의 수용과 창작 (2) - 문학사에 따른 수용과 창작’의 대단원 안에 ‘3. 조선 시대의 문학’의 중단원, ‘(1) 조선 시대의 문학’이라는 소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표-7> [디딤(하)] 출판사의 <동지사들 지나긴 밤을> 수록 현황

18) 김덕현, 위의 책, 208쪽.

교과서	작품명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단계	중심 교수 · 학습내용
디딤 (하)	<동지스 들 기나긴 밤을>	(하)Ⅱ.문학작 품의 수용과 창작 (2) - 문 학사에 따른 수용과 창작	· 조선 시대 문학의 전반적인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 수용을 통해 조선 시대 사람들의 정서와 의식을 이해한다.
		3. 조선 시대 의 문학 (1) 조선 시 대의 문학 -본시학습	【친해지기】 · 황진이 · 윤선도의 시조와 작자 미상 시조의 형식을 살펴보고, 그 차별성을 지적해 보자. 【꼼꼼히 읽기】 · <동지스달 기나긴 밤을> 시조에 쓰인 시어의 이미지, 표현 음미해 보자.

[디딤(하)] 에서 황진이의 시조를 윤선도의 시조 <잔 들고 혼자 안자>와 사설시조 <窸내고자窸내고자>와 같이 수록한 것은 기녀, 사대부, 작자 미상의 작품을 한 편씩 수록하여 각 작품의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그리고 창작 계층면에서의 시조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본장에서 [디딤(하)] 의 학습 활동을 분석한 이유도 내용과 형식, 창작 계층에 따른 문학사적 흐름에서의 황진이 시조를 알아보고, 황진이의 시어에 대한 학습 활동을 통하여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디딤(하)] 의 황진이의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친해지기】 : 1. 황진이 · 윤선도의 시조와 작자 미상 시조의 형식을

19)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하)』, 디딤돌, 2003, 186-189쪽.

살펴보고, 그 차별성을 지적해 보자.

【친해지기】 학습 활동에서 각 시조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정형시로서의 시조가 갖는 형식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이 학습 활동은 황진이의 기녀 시조와 윤선도의 사대부 시조가 시조의 기본 율격인 3장 6구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평시조이고, 작자 미상의 시조는 중장이 평시조 중장의 3배에 이르는 사설시조로 시조의 형식면에서의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 내용이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산문 정신이 대두되고 서민들이 작자층에 가세하면서 나타난 형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설시조의 대두에는 기녀들의 시조 창작 활동이 시조가 사대부 일색에서 여향인과 평민 백성들을 포함한 전체 계층으로 넓게 포진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으며, 기녀 시조가 교량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려 주는 학습 활동이다.

【꼼꼼히 읽기】 : 2. ‘서리서리 너헛다가’와 ‘구뵤구뵤 찌리라’는 대조적이다. 그 대조적인 양상을 다음과 같이 음미해 보고 빈칸에 적절한 해석을 넣어보자.

이 학습 활동은 시어의 이미지 표현의 학습 목표와 같은 맥락에서 황진이의 뛰어난 언어 구사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다. 황진이는 우리말의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다. 입을 기다리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한정된 공간에 넣었다가 입이 오시면 그간의 원망이나 그리움을 ‘구뵤구뵤 찌리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서리서리 너헛다가’와 ‘구뵤구뵤 찌리라’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시어를 공간 활용 양상과 의미 함축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간을 공간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황진이의 뛰어난 언어 구사력과 참신한 발상을 알아보는 학습 활동은

황진이의 시조가 사대부나 평민 계층의 시조와는 다른 주제와 표현 방식을 알아보는 데 효과가 있으며,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디담(하)] 는 황진이 시조 <동지스달 기나긴 밤을>을 통하여 조선 전기 시조사의 흐름에서 기녀 시조가 사대부 시조와 사설시조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어의 이미지 표현을 통해서 황진이 시조의 정서와 의식, 그리고 독특한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두산(상)] 의 <동지스달 기나긴 밤을>의 교과서 분석

[두산(상)] 에서 황진이의 시조 <동지스달 기나긴 밤을>은 ‘II. 문학의 수용과 창작’의 대단원 안에 ‘1. 서정 세계의 감응과 표현’의 중단원, ‘(4) 언어로 빛은 아름다움’이라는 소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표-8> [두산(상)] 출판사의 <동지스달 기나긴 밤을> 수록 현황

교과서	작품명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단계	중심 교수·학습내용
두산(상)	<동지스달 기나긴 밤을>	(상) II. 문학의 수용과 창작	. 서정문학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한다.
		1. 서정 세계의 감응과 표현 (4) 언어로 빛은 아름다움 - 본시학습	1. 다양한 관점에서 시가 문학을 수용하고 내면화 할 수 있다. . 황진이 시조에서 동짓달 밤이 길다고 한 이유를 서정적 자아의 심리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두산(상)] 에서 황진이의 시조는 이정신의 <미암이 뭇다 울고>와 이상의 <가정>, 정한모의 <새벽1>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문학사의 흐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언어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어 단원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조와 현대시가 같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언어가 단순히 서정적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언어 자체가 새로운 정서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을 읽을 때는 서정적 화자가 말하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유를 통하여 사물을 그려내고 있는 언어미(言語美)와 그것이 주는 쾌감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두산(상)] 의 황진이의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작품속으로】 : 3. ‘겨울밤이 길다’는 것과 ‘봄밤이 짧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에서 겨울밤이 길다고 한 이유를 서정적 화자의 심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이 학습 활동은 시의 화자가 동짓달의 밤을 길게 느끼는 것은 실제적인 밤의 길이의 차이를 넘어서 임과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한 활동이다.

[두산(상)] 에서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과 관련되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활동은 이것이 전부인데, 학습목표에서 제시한 목표와 교수·학습내용의 목표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우리말이 갖는 소리의 아름다움 느끼고, 비유의 방법이나 효과 이해하며 적절한 비유를 통한 정서 표현하기를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20)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상)』, 두산, 2003, 94-96쪽.

야 하며, 목표에 부합하는 학습 활동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황진이의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에서 뛰어난 언어미(言語美)인 ‘서리서리’, ‘구뵈구뵈’의 의태어 사용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더 읽기 부분】에 제시만 되어 있는 기녀 문학의 연정가와 관련하여 계랑의 <이화우(梨花雨) 훗뿌릴제>, 홍랑의 <뫓버들 갈히 것거>, 송이의 <꽃 보고 춤추는 나비와> 등을 활용하여 언어의 아름다움과 기녀 시조가 갖는 공통점과 작품에서 드러나는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대한 제시 부분이 아쉽다.

이처럼 [두산(상)]은 황진이 시조 <동지사 달 기나긴 밤을>을 통해 언어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보고, 서정적 화자의 심리와 관련하여 황진이의 시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앙(상)]의 <어저 내 일이야>의 교과서 분석

[중앙(상)]에서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 일이야>는 ‘II. 문학의 수용과 창작’의 대단원 안에 ‘3.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의 중단원, ‘(1) 비판적 재구성과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소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표-9> [중앙(상)] 출판사의 <어저 내 일이야> 수록 현황

교과서	작품명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단계	중심 교수·학습내용
중앙(상)	<어저 내 일이야>	(상) II.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1) 비판적 재구성과 창조적 재구성 -본시학습	· 작품을 수용자의 처지에서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 · 시인 황진이와 대화를 하고 편지글 형태로 써보자. · 형식면에서 본문에 제시된 황진이 시조를 이 작품에서 어떻게 변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중앙(상)] 은 대부분의 『문학』 교과서가 황진이의 시조를 문학 작품으로 감상하는 것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해서 [중앙(상)] 은 황진이의 <어저 내 이야기> 시조를 통해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단원을 학습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 황진이 <어저 내 이야기> 시조를 제시한 다음, 황진에게 쓴 학생의 모범 편지글과 <황진이 일탈을 꿈꾸다>라는 학생의 모범 시조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작품을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하는 ‘비판적 재구성’과 자신의 관점에서 내용과 형식, 표현의 요소를 바꾸어 재창조하는 ‘창조적 재구성’을 익히게 하였다. 이어 문학의 내면화에 따른 학습 활동에서는 홍성란의 <황진이 별곡>을 제시하여 황진이 시조를 작가가 어떻게 변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예린의 <진이(眞伊)의 노래>라는 현대시를 제시하여 형식, 갈래, 어조, 주제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수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함께,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시조 텍스트 수용사례로 볼 수 있다.²¹⁾

[중앙(상)] 의 황진이의 <어저 내 이야기>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²²⁾

(1) 이 시와 1번 활동에 제시된 시와 비교할 때,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이 있는지 모둠별로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다음은 【함께 하기】 단계에서 조예린의 <진이(眞伊)의 노래>라는 자유시를 제시하여 홍성란의 <황진이 별곡>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별성을 밝혀 보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고 있다. 이를 형식, 갈래, 어조, 주

21) 김덕현, 위의 책, 171-172쪽.

22)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상)』,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94-101쪽.

제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이는 동일한 작품을 가지고 변용한 두 작품을 이해하고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활동이다. 황진이의 고시조 작품이 현대시조와 자유시로 재구성되는 과정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작품이 제시되었으며 각 기준에 따른 공통점과 차별성의 비교를 통하여 창조적 재구성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2) 황진이의 시조와 관련된 글을 직접 써보고, 그것을 위의 시와 비교해보자. 또 친구들의 글도 읽어 보고 자신의 글과 비교해 보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작품을 수용자의 처지에서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 임을 상기시켜 볼 때 지금까지 학습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학습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원래의 작품과 그것을 재구성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비교하는 활동까지 하였으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참조하여 글을 써 보는 것이다. 본문의 글이나 기성 시인들의 시들을 참조하여 글을 써보고 친구들의 시조와 비교해 봄으로써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학습 결과를 내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앙(상)]은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 일이야>를 통해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황진이의 시조가 문학 작품의 수용의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연관되어 재구성될 수 있음을 가능하게 한 학습 활동이다. 이것은 다른 기녀 시조 작품의 학습 활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학습 활동으로서 황진이 시조 문학의 표현미와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 기녀 시조들에서 보여지는 기다림과

그리움의 내용이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황진이
의 시조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특징을 갖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상으로 황진이 시조 문학의 현행 7차 『문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의
분석을 마치었다. 본고에서 임의로 선정한 3권의 『문학』 교과서에서
황진이의 시조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은 [디딤(하)]의 경우에는 조
선 전기 시조사의 흐름에서 사대부 시조와 사설시조의 변화 과정에 기
녀 시조가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산(상)]의 경우에는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한 학습 활동으로 수록
하였다. 또한 [중앙(상)]에서는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 일이야>가 ‘문
학의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단원에서 학습되었다.

이처럼 황진이의 시조 문학은 각 교과서에서 다양한 학습 목표의 단위
아래 시조 문학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학습되고 있었다. 현행 교육 과정
에서 황진이 시조 문학의 학습 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일반 기
녀 시조의 교육 방안에서 보여지듯이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기
녀 시조로서의 황진이 시조의 문학적 특징이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기녀 시조로서의 황진이 시조를 이해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학습 활동이나, 황진이의 독자적인 시조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새로운 교육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황진이의 시조를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하는 방
안에 있어서 현행 교과서의 일반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교과서 분
석을 통한 작품론적 관점의 교육 방안을 심화하고, 이어 작가론적 관점
에서 황진이의 시조를 바라보는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수용
론적 관점의 교육 방안은 작품론적, 작가론적 교육 방안을 바탕으로 새
로운 문학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황진이의 시조 문학만이 가
지는 문학적 의의를 찾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의 실제

황진이 시조의 문학적 의의가 교육 방안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황진이의 시조의 교수 방안을 각 텍스트와 비교 분석하여 황진이 시조의 문학적 특징을 밝히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교수·학습 될 수 있도록 작품론적 관점, 작론론적 관점, 수용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작품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은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같은 제재를 가지고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차별성을 비교함으로써 기녀 시조로서의 황진이의 시조의 특성을 더욱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또한 기녀 시조와의 비교는 황진이와 일반 기녀의 공통된 정서를 알고,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일반 기녀와의 차별성을 알도록 하여 황진이의 기녀 시조 작가로서의 위상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황진이의 시조를 작가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은 황진이의 생애와 관련하여 시조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다. 그러나 황진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녀들의 생애는 정사(正史) 기록으로 전하여지지 않는다. 황진이의 생애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기녀들의 생애가 정사(正史)에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유교를 덕목으로 내세운 조선조 사회에서 여성, 그것도 기녀 신분이었던 이들에 대해 기록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기녀들의 생애는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으나 오직 황진이만 야사(野史)나 패설류(稗說類)의 기록²³⁾과 여러 시조집을 바탕으로 황진이의 생애를 추측할 수 있다.

정사(正史)의 기록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하여 황진이의 생애와 삶을 추측해 보는 것은 황진이의 시조 문학을 이해하는 데 가치

23) 이덕형의 『松都記異』, 김이지의 『中京誌』, 김택영의 『崧陽耆舊傳』, 『韶護堂集』, 허균의 『識小錄』, 김시민의 『朝野彙言 卷3』에 황진이의 기록이 전해진다.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작가론적 관점의 교육 방안은 현행 교육 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진다. 작가론적 교육 방안의 구체적인 학습 활동은 황진이와 관련된 일화와 황진이의 한시 작품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황진이의 일화를 통한 이해는 황진이의 작품이 형상화 되는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학습 자료로서 황진이의 시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학습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황진이의 한시 작품을 통한 이해는 대체로 시조작가로만 알려진 황진이의 한시 작품과 시조 작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황진이의 여성 작가로서의 면모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수용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은 작품론적 관점과 작가론적 교육 방안을 토대로 하여 그 간에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 매체에서 표현 된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창작 활동을 통하여 황진이 시조의 교육 방안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현행 황진이의 시조 교육 방안을 수렴하여 발전시키고, 작가론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심화·발전시키며 수용론적 관점에서 내면화 하는 다양한 교육 방안의 모색은 황진이의 문학 작품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황진이 시조의 문학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1. 작품론적 관점에서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

작품론적 관점에서 황진이 시조를 교육하는 방안은 현행 교육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교육 방안과 일반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는 교육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교육 방안은 본시 학습 활동 단계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 현행 교과 내용의 심화·보충의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교육 방안은 현행 교육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듯이 황진이 시조와 사대부 시조를 비교하여 주제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찾도록 한다. 특히 같은 제재를 가지고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황진이의 시조에서 내포하고 있는 자연 인식과 내용적, 표현적 특성을 학습하기 위한 활동이다.

다음의 황진이의 시조를 기녀 시조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학습 활동은 현행 교육 과정에서 본시 학습 활동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며, 보충 학습의 단계로서 문항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기녀 시조의 문학적 특징을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차별성을 강조한 학습 활동의 결과인데, 기녀 시조를 통한 황진이 시조의 비교 학습 활동은 기녀 시조로서의 황진이 시조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황진이 시조의 독자적인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황진이와 기녀 시조의 비교 학습 활동을 통해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공통적인 특성을 알고, 또한 기녀 시조 중에서 황진이 시조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특징을 학습하는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대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비교

사대부의 시조가 성리학과 유교적 이념에 바탕을 두어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자 시조를 지은 것은 문학 자체보다 자신들의 사상이나 관념을

더욱 중시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조선 전기의 사대부 시조들은 시조의 주제의 변화에 있어서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²⁴⁾

조선 건국 직후에는 이방원의 <하여가>나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여 새 삶을 추구하거나 임금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조가 주를 이루었다. 왕권이 안정되어 가면서 사대부의 시조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적 특징으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황희의 <전원사시가>나 이현보의 <귀전록> 등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자연과의 조화이다.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그린 데서 조화의 넉넉함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는 유교적 생활태도의 표방으로 주세붕의 <오륜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시조는 윤리적 덕목에 맞추어 생활할 것을 설득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사대부라는 상층인이 시조 작가의 주류를 이루었던 점과 관계가 깊다. 즉, 일종의 교육적 태도의 발로로서, 그러한 태도는 백성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노래를 선택하는 공리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설득을 위한 전달의 목적에서 창작된 시조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정철의 <훈민가> 16수, 박인로의 <오륜가> 25수 등 주로 연시조로 면면하게 맥을 잇는다.

셋째는 이념 지향과 조화의 태도로서의 주제의 변화를 갖는다. 주세붕의 <오륜가>와 같이 설득과 교훈이 전면에 강조되는 시조와는 달리 이념 지향과 조화의 태도를 시적으로 변용해 잘 드러낸 시조가 이황의 <도산십이곡>이다. 12수로 된 이 시조는 자연에 뜻을 두고 거기서 학문을 배운다는 취지를 담은 것인데 각각의 작품이 독립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이의 <고산구곡가>가 있다. 자연에 물러

24) 김대행, 위의 책, 206-207쪽.

가 자신의 심성을 가다듬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표방하는 시조를 가리켜 ‘강호시조’라고 하며 이러한 유형의 시조는 시조의 흐름에서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사대부의 시조와는 달리 기녀들의 시조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더 중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차별성을 사대부의 작품과 황진이 작품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황진이의 <청산은 내 뜻이오>와 이황의 <도산십이곡>의 제11곡 언학(言學) <청산은 옛데ㅎ야>, 그리고 성혼의 <말 없슨 청산이오>와 비교 분석하여 기녀인 황진이와 사대부인 이황과 성혼이 시조에서 드러내는 주제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세 시조는 모두 ‘청산’이라는 공통된 제재를 가지고 그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차별성을 갖는데, 이것은 기녀와 사대부의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각 시조의 주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품에 표현된 의미를 분석해 보고, 이황과 성혼이 표현한 ‘청산’과 ‘유수’의 의미를 황진이의 시조와 비교해 봄으로써 황진이 시조가 사대부 시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사대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주제의 차별성 알기

[목표학습]

1. 다음은 황진이와 이황, 성혼의 시조이다. 이 시조를 읽고 사대부 시조와 비교하여 황진이의 시조 작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 (가)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저 우러 예어 가논고.
 (『大東風雅』)
- (나) 靑山은 옛데호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데호야 晝夜애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호리라.
 (『靑丘永言』)
- (다) 말 업슨 靑山이요, 態 업슨 流水 | 로다.
 갑 업슨 淸風이요, 님즈 업슨 明月이라.
 이 中에 病 업슨 이 몸이 分別 업시 늙으리라.
 (『花源樂譜』)

- (1) 위 세 시조의 공통된 제재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 (2) (가) 시조 황진이의 <청산은 내 뜻이오>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 ① ‘청산’을 주체인 ‘나’, ‘녹수’를 객체인 ‘임’이라고 할 때 ‘녹수’의 상징성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청산	변치 않는 화자의 마음	영원성
녹수		

- ② 중장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가 의미하는 바를 ‘나’와 ‘임’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해 보자.

(3) (나) 시조 이황의 <도산십이곡>의 제11곡 언학(言學) <청산은 엇데하야>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 ① 이황은 <도산십이곡 발(跋)>에서 이 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글을 읽고 다음의 단어를 참고하여 이황의 문학관에 대하여 말해보자.

그러기에 내가 일찍이 이별(李躄)의 노래를 모방하여 <도산육곡>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지(志)를 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學)을 말한 것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이를 연습하여 노래 부르게 하고는 책상에 기대어 듣고자 한다. 만약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춤까지 추게 된다면 더러움과 탐욕을 씻고 느낌을 일으켜 마음을 서로 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이를 듣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 없지 않을 것이다.²⁵⁾

도학(道學), 교훈적, 자연, 학문 수양

- ② 이황의 시조에서 이황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청산’과 ‘유수’의 의미를 말해보자.

청산	변함이 없음	불변성
유수		

- ③ 이황의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청산’과 ‘녹수(유수)’가 의미를 비교해보자.

	<청산은 내 뜻이오>	<청산은 엇데하야>
청산	영원성	불변성
녹수(유수)		

25) <陶山十二曲跋>“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言學,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4) (다) 시조 성혼의 <말 업슨 청산이요>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 ① 다음 글을 참고하여 성혼이 (다) 시조에서 자연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해보자.

무언청산(無言靑山)과 무태유수(無態流水)를 노래한 (다)의 초장은 『논어』에서 나오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仁者樂山 智者樂水].”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삶의 목표가 인자(仁者)와 지자(智者)로서의 삶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말, 태, 값, 임자	인위적 가치	유한성
청산, 유수, 청풍, 명월		

- ② 성혼의 시조에서 ‘청산’과 ‘유수’의 의미를 말해보고, 황진이의 시조에서 보여지는 자연 인식과 비교해 보자.

(5) 위 세 시조를 작자층을 고려하여 각 시조의 주제에 대해 말해보자.

작 품	주 제
<靑山은 내 뜻이요>	
<靑山은 엇데헛야>	
<말 업슨 靑山이요>	

<작가소개>

황진이(黃眞伊, ?-?): 조선 중종-선조 때의 개성의 명기(名妓). 용모가 아름답고 시·서·음·률에 뛰어났으며, 많은 문인, 유학자등과 교유(交遊)하였다.

이황(李滉, 1501-1570): 조선 중기 학자로 유학을 집대성하였다. 자연에서 이(理)가 생기며 세속에서 기(氣)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理, 道)로써 세상을 순화하고자 하는 도학정치를 추구하였다.

성혼(成渾, 1535-1598): 조선 중종-선조 때의 학자. 이기(理氣)에 관한 학문을 율곡과 토론했으며, 기호학파의 이론적 근거를 닦았다.

【목표학습】 ‘사대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주제의 차별성 알기’에서 황진이의 시조 <청산은 내 뜻이오>와 이황의 <청산은 엇데흐야>, 성혼의 <말 업슨 청산이요>를 비교하여 사대부 시조와 기녀 시조의 차별성을 분석한 이유는 세 시조 모두 제재면에서 ‘청산’과 ‘녹수(유수)’를 사용하여 주제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세 시조 모두 같은 제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표현하고 있지만, 자연에 대한 인식 태도는 기녀인 황진이와 사대부인 이황, 성혼이 각각 다르다.

황진이의 <청산은 내 뜻이오>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조를 자연물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고 있는 시조이다. 황진이는 자신의 뜻을 언제나 변함이 없는 ‘청산(靑山)’에 비유하고, 자꾸 변하는 임의 정을 ‘녹수(綠水)’에 비유하고 있다. 황진이 자신의 의지는 청산처럼 변하지 않지만 임의 감정은 흐르는 물처럼 변하고 있음을 말한다. 흘러가는 물을 청산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변하는 임의 마음을 화자는 어쩔 수 없으나 그 임이 자신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성리학과 유교 사상을 중시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드러내려는 경향을 드러내는 사대부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자연을 빌어 유교적 질서와 이상을 읊은 노래이다. 전6곡 [언지(言志)]는 도산 서원 주변의 경관을 보고 일어나는 감흥을 노래하여 자연 관조적인 성격을 드러내었으며, 후6곡 [언학(言學)]은 학문과 수양에 임하는 의지와 자세를 노래하여 학문하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흔히 자연은 영원하나 인생은 유한하다 해서 인생무상을 노래하는데, 이황은 영원한 자연을 본받아 무상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보여 주고, 자연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도산십이곡>의 제11곡 언학(言學) <청산은 엇데흐야>에서 ‘우리는 그치지 말아 만고상칭하리라’는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정진으로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자는

뜻을 의미한다.

성혼의 <말 업슨 청산이요>는 의연하고 꾸밈이 없으며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자연을 벗 삼아 지내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조이다. 강호에 은둔하며 자연에 몰입하는 삶을 노래하는데, 안빈낙도(安貧樂道)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조하거나 감상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화자와 일체가 되는 자연을 노래하며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자연과 조화되어 근심을 잊고 살아가는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조의 특징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의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우선 ‘(1) 위 세 시조의 공통된 제재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는 세 시조에서 ‘청산’과 ‘녹수(유수)’라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제재를 찾아 같은 시어라도 시인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시조의 감상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다음 학습 활동 (2),(3),(4)는 각 시조의 개별적인 작품 분석에 관한 학습 활동으로 ‘청산’과 ‘녹수(유수)’의 의미를 분석해 감으로써 황진이 시조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자연 인식 태도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학습 활동 (2)는 황진이의 <청산은 내 뜻이요>를 분석하는 활동이다. ‘① ‘청산’을 주체인 ‘나’, ‘녹수’를 객체인 ‘임’이라고 할 때 ‘녹수’의 상징성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는 ‘청산’이 변치 않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녹수’는 변화하는 존재로서 순간적이고 유동적인 임의 마음을 의미함을 알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다. 따라서 ‘청산’이 영원성을 상징한다면, ‘녹수’는 가변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② 중장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가 의미하는 바를 ‘나’와 ‘임’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해 보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녹수’의 여러 가

지 속성 중 ‘흘러간다’는 가변성에 주목하여 ‘청산’인 ‘나’는 늘 변하지 않는 고정적 주체이고, ‘임’은 늘 떠나는 유동적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 인식 태도는 자연을 불변하는 존재로 여겨 본받거나 자연과 일체하려는 사대부의 인식과는 달리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청산’에 비유하고 떠나가는 임의 모습을 ‘녹수’에 비유하여 자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였다.

학습 활동 (3) (나) 시조 이황의 「도산십이곡」의 제11곡 언학(言學) <청산은 엇데흐야>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는 황진이의 시조 <청산은 내 뜻이오>가 임에 대한 사랑을 ‘청산’과 ‘녹수’라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 한 것과 달리 이황은 자연의 불변성을 본받아야 할 태도로 여겼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알 수 있도록 ‘① 이황은 <도산십이곡> 발(跋)에서 이 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글을 읽고 다음의 단어를 참고하여 이황의 문학관에 대하여 말해보자.’라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이황의 문학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황은 도학과 학문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고 문학이 도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도학을 강조하여 문학을 통해 도학을 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자신의 사상을 시조에 담아 표현하였는데, 그 표현보다는 내용을 더욱 중시하였다. 이처럼 이황의 시조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내용과 표현 보다는 전달의 목적을 정감의 표현으로 적절히 조화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② 이황의 시조에서 이황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청산’과 ‘유수’의 의미를 말해보자.’, ‘③ 이황의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청산’과 ‘녹수(유수)’가 의미를 비교해 보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황에게 있어서 ‘청산’, ‘유수’는 대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이상향이며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즉, 끊임 없는 노력으로 인간 세상에도 영원한 질서와 조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작가의 도학적 이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황진이의 시조에서 ‘청산’과 ‘녹수’의 의미는 변함없는 사랑과 지조를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물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해 이황의 시조에서 ‘청산’은 변함이 없음을 ‘유수’는 그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불변성을 지님으로써 이들은 본받아야 할 태도를 뜻하는 존재이다. 이처럼 황진이의 시조는 이황의 시조와는 달리 사대부들의 이념적인 자연관에서 벗어나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자연을 표현함으로써 입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참신하게 드러내고 있다.

학습 활동 ‘(4) (다) 시조 성혼의 <말 업슨 청산이요>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는 성혼의 시조를 통하여 사대부의 자연 인식 태도를 알아보려는 학습 활동이다. 사대부의 자연 인식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① 다음 글을 참고하여 성혼이 (다) 시조에서 자연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해보자.’를 제시하였고, ‘말, 태, 값, 입자’라는 유한성을 지닌 인위적 가치와 대비하여 ‘청산, 유수, 청풍, 명월’의 자연적 가치의 영원성을 찾으려 하였다. 또한 ‘② 성혼의 시조에서 ‘청산’과 ‘유수’의 의미를 말해보고, 황진이의 시조에서 보여지는 자연 인식과 비교해 보자.’는 황진이가 ‘청산’과 ‘녹수’를 입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제재로 표현했다면, 성혼의 시조 <말 업슨 청산이요>는 ‘청산’과 ‘유수’를 통하여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조화되어 세속적인 근심을 잊고 살겠다는 달관의 경지를 보여준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즐기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추구하여 삶의 교훈을 얻으려는 지적 관조의 태도에 중점을 두어 알 수 있도록 한다.

학습 활동 ‘(5) 위 세 시조를 작자층을 고려하여 각 시조의 주제에 대해 말해보자.’의 활동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주제로 표현함으로써

써 사대부 시조와 기녀 시조의 문학적 의도를 파악하게 하고, 황진이 시조의 표현의 참신성과 진실한 감정의 표현의 뛰어남을 알 수 있도록 활동이다.

이처럼 황진이의 시조와 이황, 성혼의 시조를 비교함으로써 같은 시어인 ‘청산’과 ‘녹수’에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시조를 짓는 목적이 문학이 도를 드러내는 그릇이 되어야한다는 효용론의 측면을 강조하며, 자연에서의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사상을 표하였다면 이에 반해 기녀 시조인 황진이의 시조를 통해서도 감상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은 황진이의 시조를 통하여 같은 제재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주체의 인식이 사대부와는 다르게 드러나 있음을 학습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2)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비교

기녀와 당대 지배계층인 사대부와는 사랑은 이별이 예정된 불완전한 것이었으나, 기녀는 유교적 봉건사회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사랑을 표출할 수 있는 여성계층이었다. 이러한 신분적 특수함으로 시조에서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애정 문제를 중심으로 표출한다. 56수의 기녀 시조 중 36수가 사랑하는 임에 대한 생각이 중심을 이루는 상사의 노래이며, 6수가 남성의 수작에 화답하거나 남성에게 수작을 거는 남녀수작의 노래라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²⁶⁾ 기녀의 사랑은 이별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기에 기녀의 시조에는 이를 수 없는 사랑의 그리움, 비애, 탄식, 체념, 갈등, 이별의 한 등의 정서 표출로 귀결된다.²⁷⁾ 황진이의 시조도

26) 성기옥, 「기녀 시조의 감성특성과 시조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30-32쪽.

기녀 시조로서 근본적으로는 애정과 그리움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으나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일반 기녀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일반 기녀들이 임과의 이별을 그리움과 탄식의 정서를 표출한다면, 황진이는 이와는 다른 감정의 표출 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본장에서는 황진이의 시조를 기녀 시조와 비교하여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황진이 시조와 기녀 시조의 공통적인 정서를 파악하고 그 정서를 드러냄에 있어서 황진이 시조의 독자적인 특성을 찾고자한다.

첫째,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 일이야>와 홍량의 <뫓버들 갈히 것거>, 명옥의 <꿈에 뵈는 님이>를 함께 제시하여 이 세 시조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정서를 찾고자 한다. 황진이 시조의 작품 분석과 더불어 기녀 시조로서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황진이 시조가 기녀 시조로서 가지는 위상을 찾고자 한다.

둘째, 황진이의 시조 <동지스달 기나긴 밤을>과 강강월의 <천리에 맞났다가>, 계량의 <이화우 훗뿌릴 제>를 비교하여 학습함으로써 기녀 시조의 공통적인 정서를 파악하고 그 정서를 드러냄에 있어서 황진이의 시조가 일반 기녀 시조와 차별되는 태도의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황진이와 서경덕의 화답시와 한우와 임제의 화답시를 비교하여 기녀와 사대부의 화답시에서 보여지는 특성을 찾고, 황진이와 서경덕의 화답시가 한우, 임제의 화답시와 구별되는 차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7) 이현명, 위의 논문, 22쪽.

▶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공통적인 정서 알기

【목표학습】

1. 다음은 황진이, 홍량, 명옥의 시조이다. 이 시조를 읽고 일반기녀 시조와 비교하여 황진이의 시조 작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가)

어저 내 일이야 그릴줄을 모로든나
이시라 흐더면 가랴마는 제 구뜰여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靑丘永言』)

(나)

뫼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뫼
자시는 窓밖기 심겨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넵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靑丘永言』)

(다)

꿈에 뵈는 님이 信義업다 흐것마는,
탐탐히 그리울 제 꿈 아니면 어이보리
저 님아, 꿈이라 말고 즈로즈로 뵈시쇼.

(『靑丘永言』)

- (1) 다음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 ① 황진이의 시조 (가)에서 초장의 첫 어절을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시조의 주된 정서에 대해 말해보자.
- ② 황진이의 시조 (가)에서 ‘제 구뜰여’를 앞뒷문장과 연결 할 때 시조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자.

‘제 구뜰여 보내고’	
‘제 구뜰여 가랴마는’	

- ③ (나) 시조에서 ‘뫼버들’이 의미하는 바를 말해보자.

④ (다) 시조에서 만나기 어려운 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⑤ 위의 세 시조의 공통적인 정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작가소개>

황진이(黃眞伊): 조선 중종-선조 때의 개성의 명기(名妓). 용모가 아름답고 시·서·음·률에 뛰어났으며, 많은 문인, 유학자등과 교유(交遊)하였다.

명옥(明玉): 화성의 기녀로 보이나, 미상이며 명기(名妓)로만 알려져 있다.

홍랑(紅娘): 조선 선조 때의 함경도 경성(鏡城) 기녀로 삼당시인(三唐詩人) 최경창과 정이 깊었다고 전해진다.

【목표학습】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공통적인 정서 알기’는 황진이 시조와 기녀 시조의 공통적인 정서를 알아보는 학습 활동이다. 황진이의 시조와 일반 기녀 시조의 작품을 함께 수록하여 황진이의 시조가 기녀 시조로서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 일이야>는 임을 떠나보낸 후의 회환을 진솔하게 나타낸 작품으로,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서 겪는 오묘한 심리적 갈등이 우리말의 절묘한 구사를 통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건만 임을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떠나보낸 후에 남은 간절한 그리움을 섬세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어저’라는 감탄사를 통해서 그리움을 집약시키고 있다. 이 감탄사는 이별을 하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리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한 신선한 감각이 느껴진다. 이와 관련하여 ‘① 황진이의 시조 (가)에서 초장의

첫 어절을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시조의 주된 정서에 대해 말해보자.’라는 학습 활동은 초장의 첫 어절을 감탄사로 시작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집약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도록 지도한다.

학습 활동 ‘② 황진이 시조 (가)에서 ‘제 구텃여’를 앞뒤틀문장과 연결할 때 시조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자.’는 ‘제 구텃여’가 앞뒤에 걸리는 말로서, 그때마다 주체가 달라지면서 시조의 의미에 묘미를 더 해 주는 것을 알도록 한다. ‘제 구텃여’를 중장에 연결하면 ‘제(임이) 구텃여 가라마는’의 도치형이 되고, 종장에 연결하면 ‘제(내가) 구텃여 보내고’의 뜻이 되어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도록 이 시구를 배치한 것은, 이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자존심 상하게 굳이 그 책임을 따져서 무엇하겠느냐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하여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 일이야>에 임을 그리워하는 이별의 정한이 드러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홍랑의 <뫼뻬들 갈히 것거>는 임에게 바치는 지순한 사랑을 뫼뻬들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 비록 임과 이별하게 되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임의 곁에 있고 싶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③ (나) 시조에서 ‘뫼뻬들’이 의미하는 바를 말해보자.’는 학습 활동은 ‘뫼뻬들’이 임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이별의 징표임을 알도록 한다. 임에게 바치는 지순한 사랑을 뫼뻬들로 구상화시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임의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뫼뻬들을 꺾어 보내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여인의 애뜻함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명옥의 <꿈에 뵈는 님이>는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임과의 사랑을 꿈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루어졌다. 임과의 이별을 꿈

으로나마 뵈겠다는 사모의 깊은 정이 우아하게 담겨져 있다. 그렇게 해서 꿈에서나마 자주자주 보고 싶다는 애절한 사랑의 노래이다.

이처럼 황진이, 홍랑, 명옥의 시조는 기녀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남녀간의 애정 및 인간의 정서를 솔직 담대하게 표현하며, 이별의 정한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은 황진이의 시조도 기녀 시조의 주된 정서인 임을 그리워하며 이별의 정한을 표출하고 있음을 학습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태도의 차별성 알기

【목표학습】

1. 다음은 기녀 황진이와 강강월, 계랑의 시조이다. 이 시조를 읽고 일반 기녀 시조와 비교하여 황진이의 시조 작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가)

冬至入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靑丘永言』)

(나)

천리에 맞났다가 천리에 이별하니
천리 꿈 속에 천리 님 보거고나
꿈 깬야 다시금 生覺 하니 눈물 계워 흐노라.

(『校本歷代時調全書』)

(다)

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離別한 님
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매.

(『靑丘永言』)

(1) 다음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 ① 위의 기녀 시조에 나타나는 화자의 공통적인 정서를 말해보자.
- ② 황진이의 시조 (가)에서 임과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 했는지 말해 보자.
- ③ (나)와 (다) 시조에서 임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게 하여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어구를 찾아보자.
- ④ (나)와 (다) 시조에 드러나는 임에 대한 태도를 황진이의 시조(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자.

<작가소개>

황진이(黃眞伊): 조선 중종-선조 때의 개성의 명기(名妓). 용모가 아름답고 시·서·음·률에 뛰어났으며, 많은 문인, 유학자등과 교유(交遊)하였다.

강강월(康江月): 평남 맹산(孟山)의 기녀. 생애가 전하여지지 않으며 시조가 《악부(樂府)》에 전할 뿐이다

계량(桂娘): 조선 명종 때의 전라북도 부안의 명기(名妓)로서 호는 매창(梅窓)이다. 시조와 가사, 한시 등 70여수의 작품이 전한다.

【목표학습】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태도의 차별성 알기’는 황진이의 시조와 일반 기녀 시조의 정서의 공통점을 찾고, 그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 황진이의 시조가 일반 기녀 시조와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자 하는 학습 활동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기녀 시조는 황진이의 <동지사달 기나긴 밤을>과 강강월의 <천리에 맞났다가>, 계량의 <이화우 훗뿌릴 제>인데, 이 시조는 모두 입을 그리워하며, 사모의 정(情)을 보이는 시조이다. 황진이의 시조와 계량의 시조는 현행 교육 과정에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지만, 강강월의 작품은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기녀 시조이다. 교과서에 보충 학습으로만 제시된 기녀 시조의 작품을 황진이의 시조와 함께 비교하여 학습함으로써 교과서 수록 이외의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학습 활동 ‘① 위의 기녀 시조에 나타나는 화자의 공통적인 정서를 말해보자.’를 살펴보면 기녀라는 신분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 이별의 한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를 보인다. 모두 입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을 담아 입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기녀들의 시조가 사대부 시조와는 달리 유교의 도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남녀의 애정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인간의 진솔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특징이다. 그러나 입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태도에 있어서 황진이 시조 <동지스달 기나긴 밤을>과 강강월, 계랑의 시조는 태도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한 학습 활동이 ‘② 황진이의 시조 (가)에서 입과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 했는지 말해 보자.’이다. 황진이는 입이 없는 긴 시간을 잘라 두었다가 입이 계신 짧은 밤에 연장하여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 뉘구뉘 퍼리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다. 이에 반하여 학습 활동 ‘③ (나)와 (다) 시조에서 입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게 하여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어구를 찾아보자.’는 황진이의 적극적인 의지와는 차별되는 일반 기녀의 시조를 제시하여 황진이 시조의 독자적인 특징을 찾고자 하는 학습 활동이다. (나) 강강월의 시조 <천리에 맞났다가>는 ‘천리’라는 굉장히 먼 거리를 나타내는 시어를 연쇄법으로 쓰면서 정말 입과의 거리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반가운 입이 나타나는 꿈속에서 조차 멀리 있으니 서러운 정한의 표현인 것이다. (다)계랑의 시조 <이화우 훗뿌릴 제>도 ‘천리에 외로운 꿈’이라는 둘 사이에 놓여 있는 공간적 거리감과 함께 잇을 수 없는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확장하여 ‘④ (나)와 (다) 시조에 드러나는 입에 대한 태도를 황진이의 시조 (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자.’라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황진이의 시조와 일반 기녀 시조와의 표현적 차별성을 알도록 하였다. 황진이의 <동지스달 기나긴 밤을>에서는 입 없는 겨울의 긴 밤을 베어내었다가 입 계신 짧은 봄밤을 연장해 보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반면에 강강월과 계랑의 시조에서는 이별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으로 인한 체념적이며 비련적인 모습을 보인다. 강강월의 시조에서는 주체 할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을 눈물 이외에는 달랠 방법이 없다고 하고, 계랑의 시조에서도

잇을 수 없는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일방적이며 수동적인 자세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황진이 시조와 강강월, 계랑의 시조를 비교하여 기녀 시조의 공통적인 정서를 찾아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황진이의 시조가 다른 일반 기녀 시조에 비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에서의 차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황진이의 시조와 기녀 시조를 비교하여 공통적인 정서와 그것을 표현하는 차별성을 알아보는 활동은 황진이의 신선하고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알아봄으로써 황진이 시조의 문학성을 학습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화답시 비교하기

【목표학습】

1. 다음은 기녀와 사대부가의 남성이 주고받은 화답시이다. 이 시조를 읽고 임제-한우의 화답시와 비교하여 서경덕-황진이의 화답시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가)

ㅁ음이 어린 後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 雲山에 어늬님 오리마는
지는 ㅁ 부는 ㅁ람에 ㅎ여 기가 ㅎ노라.
(『海東歌謠』)

(나)

내 언제 無信 ㅎ여 ㅁ을 언지 소것관디
月沉 三更에 온 ㅁ이 전혀 업디
秋風에 지는 ㅁ 소리야 ㅁ들 어리 ㅎ리오.
(『靑丘永言』)

- (1) 다음 (가) 시조는 서경덕이 황진이를 생각하며 지은 시조이고, (나)는 서경덕의 시조에 대한 황진이의 화답시이다. 다음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 ① (가) 시조에서 임과 시적 화자 사이에 가로놓인 장애물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말해보자.
- ② (가) 시조에서 서경덕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한 이유를 말해보자.
- ③ (나) 시조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어구를 찾아보자.

<황진이와 서경덕>

황진이는 사제 관계를 맺은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로 일컬어진다. 황진이의 유혹을 받은 서경덕이 흔들림 없이 도학자의 풍모를 지켰기 때문에 황진이와 사제 관계를 맺고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다)

北窓이 몹다커늘 雨裝 업씨 길을 난이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촌비로다
오늘은 촌비 맞았시니 얼어 잘가 흐노라.

(『海東歌謠』)

(라)

어이 얼어 자리 므스 일 얼어 자리
鴛鴦枕 翡翠衾을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촌비 마자시니 녹아 잘까 흐노라.

(『海東歌謠』)

(2) 다음 (다)와 (라) 시조는 임제와 한우가 함께 술을 나누다가 취기에 흥이 돋자 주고받은 화답시이다. 다음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① (다) 시조에서 ‘촌비’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우(寒雨)’를 비유한 말이다. 이 시조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② (라) 시조에서 한우가 임제의 마음을 받아들인 표현에 대해 말해보자.

(3) 서경덕과 황진이, 임제와 한우의 화답시를 비교하고, 그 차별성에 대하여 말해보자.

<임제와 한우>

풍류남아였던 임제가 평양의 명기(名技)였던 한우(寒雨)를 만나 구애의 표현으로 ‘한우가(寒雨歌)’를 짓고 한우는 임제의 시에 화답하였다. 찬비를 맞은 임제를 따뜻하게 녹여 자겠다든 한우의 표현에서 서로에 대한 은근한 애정이 오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중의적 표현을 쓴 임제의 구애가도 은근하지만, 똑같은 수법으로 화답한 한우의 시상 전개도 돋보인다.

【목표학습】 ‘기녀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화답시 비교하기’는 황진이의 시조가 일반 기녀들의 시조와 차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한 학습 활동으로서 기녀와 사대부의 화답시를 통하여 황진이 시조의 특성을 알아보려는 목표를 지닌다. 서경덕과 황진이, 임제와 한우의 화답시를 비교하고, 그 차별성을 통하여 황진이 시조의 독자적인 특성을 찾고자 한다.

서경덕의 시조 <마음이 어린 後尼>는 도학자였던 작가가 사제지간으로 지내던 황진이를 생각하며 지은 시조이다. 시조의 전형적인 틀을 지키면서 전통적인 그리움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임 생각에 마음이 흐려져 어리석다고 하며,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에도 입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름에 둘러싸인 이 깊은 산속에 어느 임이 올 수 있겠는가 하여 입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간절히 표현하고 있다. 이 시조는 도학자로서의 서경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서경덕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낸 작품이라고 하겠다.

이에 화답하는 시로 알려진 황진이의 <내 언제 무신하여>는 가을밤에 입을 기다리며 외롭게 밤을 지새우는 여인의 정한(情恨)을 그리는 시조이다. 추풍에 지는 잎을 제재로 하여 체념하는 듯 하면서도 더욱 간절한 기다림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황진이와 서경덕의 화답시를 통해서는 서로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가) 시조에서 임과 시적 화자 사이에 가로놓인 장애물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말해보자.’, ‘② (가) 시조에서 서경덕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한 이유를 말해보자.’, ‘③ (나) 시조에서 입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어구를 찾아보자.’를 제시하였다. ‘만중운산’은 임과 시적 자아 사이에 가로놓인 장애물인 동시에 기다림의 정감을 고조시키는 매개물이며, 한편으로는 도학자로서

의 자신의 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한 이유는 도를 닦는 데 일생을 바치고 있으면서도 낙엽 지고 바람 부는 소리에 임의 발자국 소리인가 하고 문을 열어 보는 자신을 스스로 어리석다고 말하는 데서 기다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읽을 수 있다. 도학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연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에 충실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그리움은 서경덕의 시조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화답한 황진이의 시조 <내 언제 무신하여>에서도 드러나는데 임이 찾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추풍에 지는 잎 소리에 의탁하여 말하고 있다. 이 학습 활동은 기녀와 사대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움의 표현 방식이 기녀만의 일방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사대부 시조에서도 그려져 서로를 향한 그리움의 심정이 절실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다.

황진이의 시조에 비해 대부분의 기녀와 사대부의 화답시는 임제와 한우의 시조, 송강 정철과 진옥의 시조²⁸⁾에서 보여지듯이 언어 유희적이며, 회작적인 성격이 짙다. 이것을 임제와 한우의 화답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① (다) 시조에서 ‘찬비’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우(寒雨)’를 비유한 말이다. 이 시조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② (라) 시조에서 한우가 임제의 마음을 받아들인 표현에 대해 말해보자.’라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임제의 <북창이 뭍다커늘>은 한우와 술잔을 나누다가 취기에 흥이 돋자 ‘찬비를 맞았으니 얼어서 자야겠다.’고 하였는데, ‘한우’를 ‘찬비’에

28) 玉을 玉이라 커늘 礪玉만 너겨써니
이제야 보아하니 眞玉일씨 적실흐다
내게 슬송곳 잇던니 쭈러 불가 흐노라.

鐵을 鐵이라커든 무쇠 錫鐵만 여것더니
다시 보니 正鐵일시의實흐다
맛춤이 골풀모 잇던니 녹여 불가 흐노라.

비유한 재치가 돋보이고, ‘얼어 잘까’는 ‘언 몸으로 잘까’, ‘그대와 동침할까’의 의미로 해학적인 면모가 나타나 있다. 이에 화답한 한우의 시조 <어이 얼어 잘이>는 찬비를 맞은 임제를 따뜻하게 녹여 자꼰다는 한우의 표현에서 서로에 대한 은근한 애정이 오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표현이기보다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의 비유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나 임제와 한우의 화답시에는 서경덕과 황진이의 시조에서 보여지는 진실하고도 절실한 그리움과 애정의 모습보다는 희작적이며 유희적인 모습이 중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비교해 보는 학습 활동 ‘(3) 서경덕과 황진이, 임제와 한우의 화답시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말해보자.’를 통하여 황진이의 시조가 일반 기녀 시조인 한우의 시조에 비해 유희적이고 향락적인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하는 인간 본연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작품론적 관점에서 살펴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은 황진이 시조를 사대부 시조와 비교하여 주제의 차별성을 알고, 기녀 시조와 비교하여 공통적인 정서와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차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교육 방안은 현행 교육 과정의 내용을 심화·보충하여 황진이 시조 문학의 독자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될 것이다.

2. 작가론적 관점에서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

작가론적 관점에서 황진이의 시조를 교육하는 방안은 작가의 생애를 재구하여 텍스트가 놓인 컨텍스트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녀들의 생애나 생활상은 조선 시대 유교적 이념의 영향으로 정사(正史)에 기록될 수 없었기 때문에 황진이의 작가적 생애를 검토하는 작가론적 관점의 교육 방안은 다소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여타의 일반 기녀들의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비해서 황진이의 기록은 간접사료인 패설류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이 기록의 일화 속의 황진이의 모습은 미화되거나 과장된 감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황진이의 생애와 삶의 모습을 추측해 보는 것은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삶을 유추해 보고, 황진이의 시조 작품의 문학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지닌다. 또한 대체로 시조 작가로만 알려진 황진이의 한시 작품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황진이의 시조 작품을 학습 하는 것은 황진이의 여성 작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하여 황진이 시조의 문학적 위상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황진이의 삶을 기녀로서의 삶, 시조 작가로서의 삶, 한시 작가로서의 삶으로 이해해 보는 것은 황진이의 문학 작품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감상하는데 밑바탕이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행 교육 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작가론적 교육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여 학습자가 황진이의 시조 작품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황진이의 일화와 한시 작품을 제시하고 황진이의 시조와의 연결을 통해 작가론적 관점에서 황진이 시조를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일화를 통한 황진이의 삶에 대한 이해

황진은 조선 시대 기녀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하여 그녀에 대한 정사(正史)기록은 왕조실록이나 그와 교유한 명유(名儒)·문사들의 문집 어디에도 전하지 않아 정확한 생물연대조차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녀들의 기록에 비해 후대의 야담이나 기이(記異) 등 설화적으로 윤색된 문헌에 그녀의 출생과 행적, 죽음에 관한 기사가 전하고 시조집, 한시 선집 등에 황진의 작품 약간 편이 수습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황진의 정확한 생애를 알 수 없기에 전해져 오는 일화에 의존하여 황진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일화에는 황진의 생애나 성격, 삶의 모습과 시조 작품이 창작되는 배경으로서 모습 등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일화를 통해 황진의 삶의 모습을 추측해 보고, 황진의 시조가 창작되는 배경 등을 알아보는 것은 황진 시조 작품을 이해하는데 밑바탕이 되어 황진 시조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황진과 관련된 일화²⁹⁾ 중에서 벽계수와 소세양의 일화를 제시하여 황진의 기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으며, 황진의 이러한 모습이 시조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벽계수와 의 일화를 통해서는 <청산리 벽계수야>를, 소세양의 일화를 통해서는 <청산은 내 뜻이오>를 살펴보겠다.

29) 황진의 일화와 관련하여 서경덕과 벽계수의 일화를 제외하고 지족선사는 『惺翁識小錄』에 이생, 이사중, 소세양의 일화는 『於于野談』에 의해 전해진다. 또한 본장에서 인용된 일화는 박을수 著, 《詩話 사랑 그 그리움의 샘》(아세아문화사, 1994, 26-29쪽)을 참조하고, 김흥년, 「황진 시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 벽계수의 일화를 통한 <청산리 벽계수야> 이해하기

【목표학습】

1. 다음은 황진이와 벽계수와의 일화이다. 이 일화를 읽고 <청산리 벽계수야> 시조의 창작 배경의 일화에 대해 알아보자.

황진은 송도의 이름난 기생(妓生)이었다. 미모와 재주가 뛰어나 이름이 온 나라 안에 퍼졌다. 임금의 친족으로 벽계수*란 자가 있어 황진을 사모하여 한 번 결혼질로라도 보고자 했다. 그러나 진이는 성정(性情)*이 매우 높아 저절로 으뜸에 이르니 풍류(風流)*를 아는 이름난 선비가 아니고서는 친할 수 없었다.

이에 손곡 이달*로 하여금 만날 방법(피)을 찾게 하였다. 이달이 말하되, “공이 진랑을 어깨 너머라도 한 번 보고 싶으면 내 말처럼 하겠는가?” 하자 벽계수가 이르되,

“마땅히 좋으리다.”하자 이달이 말하기를

“그대가 소동(小童)으로 하여금 거문고를 기고 뒤따르게 한 연후에 작은 나귀를 타고 진랑*의 집을 지나 누각에 올라 천천히 술을 마시며 거문고로 한 곡조를 타고 있으면 곧 진랑이 반드시 그대의 곁에 앉을 것인데 그대가 본체만체 하고 즉시 일어나 나귀를 타고 가면 곧이어 진랑은 또한 마땅히 뒤를 쫓아 올 것이다. (가) 그리고 취적교를 지나도록 돌아보지 않으면 즉시 일이 성사되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일렀다.

벽계수가 그 말을 좇아 작은 나귀를 타고 어린 아이로 하여금 거문고를 끼게 하고 진이의 집을 지나 누각에 올라 천천히 술을 마시며 거문고 한 곡조를 타다가 곧바로 일어나 작은 나귀를 타고 갔다. 진이가 과연 뒤를 따라와 마침 취적교에 이르니 거문고를 타는 아이에게 물어보니 그 거문고를 탄 사람이 바로 벽계수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를

“청산리 벽계수야 쉬지 않고 감을 자랑마라. 한 번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어찌 얻겠느냐 명월이 빈산에 가득 찼으니 잠시 머물러 한 번 놀다 가기를 원하노라.”라 하니 벽계수가 이 노래를 듣고 능히 가지를 못하고 취적교 가에 이르러 다시 돌아보다가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거늘 진량이 웃으며 말하기를 (나)“이 사람은 명사*(名士)가 아니로다. 너는 풍류랑*(風流郎)이로구나.”하고 즉시 돌아갔다. 이에 벽계수가 점점 부끄럽기가 한이 없었다.

(1) 다음 일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① 위 일화에서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자.

<단어풀이>

진량 : 황진이의 기명(妓名)은 명월(明月)이라 했고, 진이(眞伊)라는 이름이외에 진이(珍伊) 또는 진(眞)이란 이름이 통용되었고 진량이라고 많이 불리어졌다.

손곡 이달(李達) : 조선 중기 선조(宣祖) 때의 한시인(漢詩人). 신분적 한계가 있었으나 당시풍(唐詩風)의 시를 잘 지어 선조 때의 삼당파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허균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표작으로 《산사》 등이 있다.

벽계수(碧溪水) : ① 시인이자 문인으로 임금의 친족이며 스스로 ‘천하정남(天下眞男)’이라 일컬었다. ② 물빛이 맑아 푸르게 보이는 시냇물

성정(性情) :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성품(性稟).

풍류(風流) :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

풍류랑(風流郎) : 풍치가 있고 멋진 젊은 남자.

명사(名士) : ①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 ② 이름난 선비.

- ② 손곡 이달이 벽계수에게 황진이를 만날 수 있는 (가)와 같은 방법을 알려준 이유에 대해 다음 글을 참고하여 말해보자.

기생 놀음 으뜸이라

백구처럼 빠른 세상 하루살이 우리인생
 아니 놀면 무엇하오
 대장부 일세쾌사 주색밖에 또 있는가
 앵무같이 고운 소리 권주가 한 곡조는
 흐린 술에도 춤이 나고
 제 것 두고 못 쓰는건 부자집 창고지기
 쾌한 일이 미색 밖에 또 무엇고
 서서히 생각하오 힘 돋우는 이내 말씀³⁰⁾

- ③ 황진이가 (나)와 같이 말하고 돌아 간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 (2) 다음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청산리 碧溪水 |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一到滄海*흐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하니* 쉬여간들 엇더리.

(『靑丘永言』)

- ① 일화를 읽고 위 시조의 ‘벽계수’와 ‘명월’의 중의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 ② 시조의 종장 ‘明月이 滿空山하니 쉬여간들 엇더리.’의 의미를 말해보자.

* **일도창해** : 한 번 푸른 바다로 흘러감

* **만공산하니** : 빈산에 가득하니

30)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소수록 읽기』, 문학동네, 2007, 198쪽.

【목표학습】 ‘벽계수의 일화를 통한 <청산리 벽계수야> 이해하기’는 벽계수와 의 일화를 통하여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모습을 유추해보고, 기녀로서의 모습이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황진이의 시조 작품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일화를 읽은 후에 ‘① 위 일화에서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학습 활동은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모습이 일화에 어떻게 전해지는 지를 알아보고,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벽계수의 일화에 전해지는 황진이의 모습은 아무리 임금의 친족이라도 명사(名士)가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는 황진이의 자존심 강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염두 해두고 ‘② 손곡 이달이 벽계수에게 황진이를 만날 수 있는 (가)와 같은 방법을 알려준 이유에 대해 다음 글을 참고하여 말해보자.’, ‘③ 황진이가 (나)와 같이 말하고 돌아 간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의 학습 활동은 황진이가 일반 기녀와는 다른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에 제시된 기녀의 글은 서울로 상경하여 대원군의 총애를 입었다는 해주 기생 옥소선으로 추정되는 옥소라는 기녀의 글로 『소수록』 제2편에 실려 있다. 이 글을 읽어보면 기녀의 유희적이고 향락적임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일화에서 나타나는 황진이와 일반 기녀들의 모습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아무리 임금의 친족인 벽계수라 하더라도 황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풍류랑(風流郎)의 모습이 아닌 명사(名士)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손곡 이달이 이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황진이는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벽계수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청산리 벽계수야> 시조를 부르고 벽계수의 반응을 기다린다. 그러나 자신의 유혹에 흔들리고 마는 벽계수의 모습을 보고 명사(名士)가 아니라 풍류랑(風流郎)의 모습이라 여기고 즉시 돌아가는 모습에서 남존여비의 사회적 제도 속에서 절대적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대등하게 상대함으로써 황진이의 자신만만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³¹⁾ 이는 황진이의 신분이 사대부가의 여성이 아니라 기녀였으므로 가능한 행태라 할 수 있겠다. 벽계수와와의 일화를 통한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삶의 모습은 자신이 비록 기녀일지라도 자신과 교류하는데 있어서는 풍류랑(風流郎)의 모습이 아니라 명사(名士)로서의 모습을 지닌 이와 교류하고자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벽계수와와의 일화를 통한 황진이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를 살펴보게 하는 것은 시조 작품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흥미롭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벽계수와 명월의 중의적 표현과 시조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는 황진이가 임금의 친족인 벽계수를 유혹하기 위해 불렀다는 시조로, 세월은 빠르고 인생은 덧없는 것이니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지는 기녀다운 호소력을 보이는 시조이다. 청산이 영원함을 나타냈다면 벽계수는 순간적인 인생에 비유되었는데 유한자의 인간, 벽계수에게 쉬었다가기를 권유하는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종실의 한 사람이라고 지칭된 벽계수는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푸른 시냇물이라는 중의적 표현으로 비유되었으며 전장의 대구인 명월도 밝은 달인 동시에 자신의 기명이기도 하니 벽계수와와의 놀이를 권유하는 노래이면서 크게는 유한자의 인생과 무한자의 자연과의 대비도 되는 시조이다.³²⁾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① 일화를 읽고 위 시조의 ‘벽계수’와 ‘명월’의 중의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② 시조의 종장 ‘明月이 滿空山하니 쉬여간들 엇더리.’의 의미를 말해보자.’는 일화를 통하여 알아본 시조의 창작 배경을 통해 ‘벽계수’와 ‘명월’의 중의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시조의 종장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벽계수’는 ‘흐르는 물’과 ‘임금의 친족인 벽계수’

31) 김흥년, 위의 논문, 25쪽.

32) 김명희, 위의 논문, 114쪽.

를, ‘명월’은 ‘밝은 달’과 ‘황진이 자신’을 동시에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이와 같은 중의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인생의 한때를 자기와 즐겁게 보내자며 유혹하는 재치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이 시조를 들은 벽계수가 말에서 떨어지자 ‘이 사람은 명사(名士)가 아니로다. 너는 풍류랑(風流郎)이로구나하고 즉시 돌아갔다.’는 황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벽계수의 일화를 통한 황진이의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의 이해하기는 황진이와 벽계수와의 일화를 바탕으로 하여 기념로서의 황진이의 모습을 유추해보고, 작품에 드러난 중의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소세양의 일화를 통한 <청산은 내 뜻이오> 이해하기

【목표학습】

1. 다음은 황진이와 소세양과의 일화이다. 이 일화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소세양은 젊어서부터 마음이 강직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매일 여색(女色)에 미혹하는 자는 세상의 남자가 아니라고 장담하였다. 소세양은 송도에 진랑이라는 기녀가 있는데, 재주와 이름이 세상에 널리 떨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 약속하기를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생활하기를 30일을 하고 즉시 이별할 것이되 털끝만큼이라도 다시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고 했다. 이 기간이 지나 만약 하루라도 더 머문다면 곧 너희들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고 말했다.

송도에 가서 이르러 진랑을 보니 과연 명기(名妓)였다. 인하여 더불어 사귀어 즐겨하며 머물러 살기를 한 달이 되자, 분명하고 확실하게 떠나 가려했다. 그리고 떠나는 날에 진랑과 더불어 남루에 올라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진랑은 소세양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공(公)과 더불어 서로 이별하게 되니 어찌 한 마디 없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서투른 글이지만 한 구절을 지어 올리고자 합니다.” 소세양이 허락하거늘 즉시 한 수 글을 써서 주었다.

(가) 이 시를 듣고 소세양은 결국 탄식을 하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더 머물렀다.

이 때 황진이가 읊은 시가 바로 <봉별소관서세양>이다.

- (1) 다음 일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 ① 일화에 나타나는 소세양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자.
- ② 황진이와 소세양에게 이별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자.

소세양(蘇世讓, 1486-1562) :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자는 언겸(彦謙). 호는 양곡(陽谷)·퇴휴당(退休堂). 저서에 《양곡집》이 있다.

(2) 다음은 황진이가 소세양과 이별 할 때 읊은 한시 <봉별소판서세양 (奉別蘇判書世讓)>이다. 이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봉별소판서세양 (奉別蘇判書世讓)>

달빛 어린 뜰에는 오동잎지고
서리 맞은 들국화 노랗게 피었네
누대는 높고 높아 하늘에 닿을 듯
오가는 술잔은 취해도 끝이 없네
흐르는 물소리는 거문고 가락에 싸늘하고
매화는 피리 곡조에 젖어 향기로와라
내일 아침 눈물지며 이별한 뒤에
그리운 정은 강물되어 이어지리라.³³⁾

月下庭梧盡 霜中野菊黃
樓高天一尺 人醉酒三觴
流水和琴冷 梅花入笛香
明朝相別後 情與碧波長

- ① 위 한시를 읽고 소세양이 (가)와 같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후 황진이와 더 머무른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 ② 황진이의 시조 <청산은 내 뜻이오>와 한시 <봉별소판서세양>의 공통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져 우러 예어 가노고.

【목표학습】 ‘소세양의 일화를 통한 <청산은 내 뜻이오> 이해하기’는 소세양과의 일화를 통하여 <봉별소판서세양> 한시를 알고, 이 한시와 시조 <청산은 내 뜻이오>의 공통된 주제를 찾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황진이와 소세양의 일화를 통해 ‘① 일화에 나타나는 소세양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자.’와 ‘② 황진이가 소세양에게 이별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자.’의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은 일화에 표현된 소세양과 황진이의 모습을 통하여 한시 <봉별소판서세양>의 창작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소세양은 여성과의 만남과 이별에 있어서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을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황진이가 건넨 한시로 인하여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만다. 그 한시가 바로 <봉별소판서세양>이다.

일화를 통해 소세양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머무르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황진이와의 30일이 지난 후 남루에서 지은 한시 <봉별소판서세양>을 들은 후에 이 한시에 감탄하였기 때문이다. 이 <봉별소판서세양>은 소세양과 한 달을 보내고 이별의 연회를 베풀면서 지은 시로 소세양과의 이별을 앞둔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에 감정이입한 시이다.³⁴⁾ 오동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고 달빛이 비추는 가을, 서리가 내린 곳에 들국화가 홀로 외롭게 피어있는 모습은 임이 떠난 심정을 더욱 외롭게 느껴지게 한다. 이렇게 황진이는 소세양과의 이별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소세양과의 이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시를 지어 부름으로써 소세양이 황진이 곁에 더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한시로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드러내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황진이의 여성 작가로서의 뛰어난 면모라 하겠다.

한시 <봉별소판서세양>과 이미 작품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진 시조 <청

33) 성낙은, 『고시조산책』, 국학자료원, 1996, 509쪽.

34) 신미경, 「황진이 문학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26쪽.

산은 내 뜻이오>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입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찾을 수 있으며, 소세양과의 일화를 통하여 황진이의 작가로서의 모습과 입을 향한 애정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 한시를 통한 황진이 작가적 삶에 대한 이해

기녀들의 한시는 즉흥적이고 집단적인 창화방식이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기녀들이 처한 기방의 상업성이라는 상황적 요소를 감안한다면 일종의 관습구나 기존 시구를 집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즉흥적 수작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특히 기방에서 지어지는 기녀 한시의 경우에는 특정 작가의 개성적 ‘창작’ 작품이라기보다는 ‘집구시’적 성격을 지니며, 진지한 문학적 의식의 소산이라기보다는 문학적 풍류의식의 소산이라고 해야 할 측면이 존재한다.³⁵⁾

이러한 기녀한시의 특성과 달리 황진이의 한시는 기녀들의 한시의 특징을 벗어나 역사적인 사실과 인생무상의 주제를 갖는 등 다양한 주제와 뛰어난 표현방식으로 문학적 가치를 지니는 한시를 지었다. 이것은 황진이의 한시가 기방에서 지어지는 ‘집구시’의 성격을 넘어 썼기에 나타날 수 있었으며 황진이의 작가적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진지한 문학적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황진이의 <영반월>, <송도>, <박연폭포> 세 수의 한시 작품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된 황진이의 여성 작가로서의 삶을 알아보고, 시조 작품과 관련하여 황진이의 시조 작품의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5) 김진영, 『고전작가의 풍모와 문학』,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125쪽.

▶ 한시 <영반월 (詠半月)>과 시조 <동지사달 지나긴 밤을> 이해하기

【목표학습】

1. 다음은 황진이의 한시 <영반월>과 시조 <동지사달 지나긴 밤을>이다. 두 작품을 읽고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보자.

(가) <영반월 (詠半月)>*

누가 곤륜산*의 옥을 잘라내어
직녀*의 빛으로 만들었나
견우와 이별한 직녀가
시름 겨워 창공에 던져버렸네³⁶⁾

誰斷崑山玉 裁成織女梳
牽牛一去後 愁擲碧空虛

(나) 冬至사들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이어든 구뵤구뵤 퍼리라.

- (1) 한시 <영반월>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 ① 황진이의 한시 <영반월>은 반달과 견우직녀 설화를 소재로 하여 지어진 작품이다. 견우직녀 설화와 연관하여 <영반월>을 다시 읽어 보자.
- ② ‘직녀의 빛’이 의미하는 바를 말해보자.

* 영반월(詠半月): 반달을 노래한다.

* 곤륜산(崑崙山): 중국 전설상의 높은 산. 중국의 서쪽에 있으며, 옥(玉)이 난다고 한다. 전국(戰國)시대 말기부터는 서왕모(西王母)가 살며 불사(不死)의 물이 흐른다고 믿어졌다.

* 직녀: 견우직녀 설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36) 안대회,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③ 다음은 2006년 KBS 드라마 《황진이》에서 <영반월>을 읊고 있는 장면이다.³⁷⁾ 이 장면을 참고하여 한시 <영반월>에서 느껴지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야기 해보자.



37) KBS 드라마 《황진이》의 9회 ‘그대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인용하였다.

(2) 시조 <동지사달 기나긴 밤을>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① 중장의 ‘서리서리 너털다가’는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보낸 긴 시간을 모아두겠다는 시적화자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렇다면 ‘구뵤구뵤 퍼리라’는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② 위 시조에서 ‘춘풍’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3) 황진이의 한시 <영반월>과 시조 <동지사달 기나긴 밤을>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야기 해보자.

【목표학습】 ‘한시 <영반월>과 시조 <동지사달 기나긴 밤을> 이해하기’는 황진이의 한시와 시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황진이 문학의 독창적인 발상과 참신한 표현을 알도록 지도한다.

한시 <영반월>은 허공의 반월을 보고 자신과 임을 직녀와 견우에 비유하여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한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임에 대한 자신의 신세를 빗으로 비유하고, 다시 반달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견우와 직녀는 1년에 단 한 번, 칠월 칠석에만 오작교를 통하여 만나는 애달픈 사랑의 주인공들이다. 견우와 이별한 뒤 상심한 직녀가 던져버린 빗을

밤하늘의 반달에 비유하여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심경을 절묘하게 드러내는 한시 작품이다. 이와 같은 <영반월>을 견우직녀 설화와 연결하여 다시 읽어보는 학습 활동 ‘① 황진이 한시 <영반월>은 반달과 견우직녀 설화를 소재로 하여 지어진 작품이다. 견우직녀 설화와 연관하여 <영반월>을 다시 읽어 보자.’는 한시와 관련되어 있는 설화의 내용을 상기시켜 기존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한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습 활동 ‘② ‘직녀의 빛’이 의미하는 바를 말해보자.’를 통하여 직녀의 빛이 의미하는 바가 반달임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영반월>이 견우직녀 설화를 소재로 한 한시임을 염두 해두고, 이 한시에서 느껴지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찾아보는 활동은 황진이가 한시에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는 기본 단계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은 ‘③ 다음은 2006년 KBS 드라마 《황진이》에서 <영반월>을 읊고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참고하여 한시 <영반월>에서 느껴지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야기 해보자.’인데, <영반월>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드라마에 표현된 장면과 함께 제시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영반월>과 함께 제시한 시조 <동지사달 지나긴 밤을>은 입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적극적이며 참신한 비유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알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서리서리 너헛다가’, ‘구뵈구뵈 퍼리라’는 의미 함축 양상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추상적인 시간을 마치 형태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였음을 알도록 한다. 이는 황진이가 입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한시 <영반월>을 통해서 견우직녀 설화를 소재로 하여 뛰어난 문학적 비유로 표현했으며, 시조 <동지사달 지나긴 밤을>을 통해서 우리말의 표현에 있어서의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드러냄을 이해하도록 한다.

▶ 한시 <송도 (松都)>와 시조 <산은 넷 산이로되> 이해하기

【목표학습】

1. 다음은 황진이의 한시 <송도>와 시조 <산은 넷 산이로되>이다. 이 두 작품을 읽고 공통된 주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가) <송도 (松都)>

눈 가운데 그 옛날 고려의 빛 떠돌고
차디찬 종소리는 옛 나라의 소리 같네
남루에 수심겨워 외로이 섰노라니
남은 성터에 저녁연기 피어 오르네³⁸⁾

雪中前朝色 寒鐘故國聲
南樓愁獨立 殘廓暮烟香

(나) 산은 넷 山이로되 물은 넷 물이 안이로다.
晝夜에 홀은이 넷 물이 이실쏟야.
人傑*도 물과 갓도다 가고 안이 오노매라.

(1) 위의 두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① 황진이는 옛 고려의 수도인 송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송도를 중심으로 살았다. (가) 한시 <송도>를 읽고 황진이가 노래하고 있는 송도의 모습을 말해보자.

② 황진이의 시조 (나)에서 제재로 쓰인 ‘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 인결: 뛰어난 인재

- ③ (나)시조에서 ‘인걸’을 특정인인 ‘서경덕’으로 지칭했을 경우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리워하는 시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걸’이 ‘보편적 인간’을 의미한다면 이 시조의 주제는 무엇일지 말해보자.
- ④ 황진이와 한시 <송도>와 시조 <산은 옛 산이로되>의 공통적인 주제를 황진이의 심리와 관련하여 말해보자.

【목표학습】 ‘한시 <송도>와 시조 <산은 옛 산이로되> 이해하기’는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주제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다. 황진이의 여성 작가로서의 면모를 파악하고, 한시 <송도>에서 표현된 송도의 모습과 시조 <산은 옛 산이로되>에서의 시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황진이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

한시 <송도>에서 황진이는 송도의 모습을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매우 쓸쓸하게 묘사하여 읊고 있다. 이것은 시적 자아의 현재의 처지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연물에 의탁한 작가의 심정을 헤아려보는 것이다. 황진이가 노래하고 있는 송도의 모습이 매우 쓸쓸하다는 점을 들어 기녀로서의 황진이의 삶이 화려하지만은 않으며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생무상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조 <산은 옛 산이로되>는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주야에 흐르니 예전의 물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다면서, 인걸도 물과 같이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물’은 순간적 존재 혹은

38) 김지용, 『한국역대여류한시문선(上)』, 명문당, 2005.

유한성을 상징하며, 이는 곧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학습 활동이 ‘② 황진이의 시조 (나)에서 제재로 쓰인 ‘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이다. 이 시조에서 황진은 한번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한 번 간 인걸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물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특히 이 작품은 ‘인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습 활동 ‘③ (나) 시조에서 ‘인걸’을 특정인인 ‘서경덕’으로 지칭했을 경우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리워하는 시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걸’이 ‘보편적 인간’을 의미한다면 이 시조의 주제는 무엇일지 말해보자.’는 이와 관련한 학습 활동인데, 인걸을 서경덕으로 지칭했을 경우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리워하는 애련의 노래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편적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세월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장에서 뛰어난 인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더불어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다. 정인(情人)에 대한 기녀의 시조가 인생무상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으로 확산되는 주제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한시 <송도>와 시조 <산은 냇 산이로되>는 임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이라는 기녀 시조의 보편적인 주제 의식에서 벗어나 인생무상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학습 활동 ‘④ 황진이 한시 <송도>와 시조 <산은 냇 산이로되>의 공통적인 주제를 황진이의 심리와 관련하여 말해보자.’를 통하여 정리 할 수 있다. 기녀로서의 특수한 신분의 삶에서 오는 인생의 한계와 무상이라는 정서를 작품을 통하여 드러낸 것이다. 시조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한시 작품에서 느껴지는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찾아 봄으로써 황진이의 시조가 단지 애정의 주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감정으로 확산 될 수 있었음을 파악하도록 한다.

▶ 한시 <박연폭포 (朴淵瀑布)>의 남성적 분위기 이해하기

【목표학습】

1. 다음은 황진이의 한시 <박연폭포>이다. 이 한시를 읽고 황진이 한시 <박연폭포>의 어조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박연폭포 (朴淵瀑布)>

흰 물결 긴 시내 골짜기를 갈아 뿜고
용소는 백 길 물소리 충충하다
나는 샘이 거꾸로 쏟아지니 은하수인가 싶고
노한 폭포는 가로 걸려 완전히 흰 무지개일세
우박이 어지럽고 우레소리 달려 동부에 가득하니
구슬이 바수어져 개인 하늘에 흩어지네
유람은 이여, 여산이 더 아름답다 말하지 말라
모름지기 천마산이 해동의 으뜸임을 알아야 할지니³⁹⁾

一派長川噴壑轟 龍湫百仞水潑潑
飛泉倒瀉疑銀漢 怒瀑橫垂宛白虹
雹亂霆馳彌洞府 珠春玉碎徹晴空
遊人莫道廬山勝 須識天磨冠海東

- (1) 다음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 ① 황진이 한시 <박연폭포>를 읽고 박연폭포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 ② 황진이의 한시 <박연폭포>를 낭독해 보고 허난설헌의 <봄비>와 비교하여 어조적 측면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봄비>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찬 바람이 장막 속 스며들 제
뜬시름 못내 이겨 병풍 기대니
송이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지내.

春雨暗西池 輕寒襲羅幕
愁依小屏風 牆頭杏花落

- ③ 황진이가 송도삼절을 자신과 서경덕, 그리고 박연폭포라 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목표학습】 ‘한시 <박연폭포>의 남성적 분위기 이해하기’는 황진이의 한시에서 나타나는 대담한 남성적 분위기의 어조를 알아보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황진이의 <박연폭포>는 송도의 천마산에 있는 박연폭포의 장관을 노래한 한시로서 웅장한 모습을 강하게 표현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풍류를

39) 박무영, 「고전 여성 한시작가의 문학세계」, 『한국고전 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255쪽.

노래한 황진이의 시적 세계를 볼 수 있다. 그 당시 양반층에서나 누리는 자연에 대한 풍류를 읊은 것은 황진이의 여성 한시작가로서의 독특한 특성이 될 수 있으며 박연폭포의 장관을 묘사한 표현력은 여인의 섬세한 분위기가 아니라 대담한 남성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 황진이의 한시 <박연폭포>를 읽고 박연폭포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라는 학습 활동은 한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황진이의 한시 <박연폭포>는 이를 읽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하고 장관인 박연폭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대담한 남성적 어조는 힘찬 박연폭포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허난설헌의 한시 <봄비>를 제시하고 ‘② 황진이의 한시 <박연폭포>를 낭독해 보고 허난설헌의 봄비와 비교하여 어조적 측면의 차이점을 말해보자.’라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여성 작가의 두 작품을 낭독해보고 느껴지는 어조적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황진이의 <박연폭포>의 대담하고 힘찬 남성적 어조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허난설헌이 그의 한시 <봄비>에서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규방에서 홀로 지내는 여인의 외로움과 젊은 날의 세월을 보내는 아쉬움을 쓸쓸한 독백의 어조로 여성적인 섬세함을 구현하였다면, 황진이의 한시 <박연폭포>에서는 이와는 다른 어조의 특징을 보인다.

황진이의 한시 <박연폭포>는 여성적 한계를 뛰어넘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 될 정도로⁴⁰⁾ 이 한시의 힘차고 활달한 기상, 대단한 스케일, 힘찬 어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어조를 형성하는 요소로는 명령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단정적이고 강한 결말의 어법과 묘사를 위주로

40) 박무영, 위의 책, 254쪽.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보다 동사 서술어를 위주로 하는 언어 구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황진이의 한시에서 보여지는 힘차고 강한 남성적 어조를 허난설헌의 한시 <봄비>와 비교해 봄으로써 어조적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 볼 ‘③ 황진이가 송도삼절을 자신과 서경덕, 그리고 박연폭포라 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자.’라는 학습 활동은 송도를 대표하는 삼절에 박연폭포를 포함시킨 것은 황진이가 박연폭포를 단순한 자연물 이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시적 세계를 투영했음을 알도록 하는 활동이다. 한시 <박연폭포>에는 자연을 경탄의 대상에서 바라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황진이 자신의 의식을 담아 표현하여 여성적 한계를 뛰어 넘는 성과를 보여준다. 송도삼절에 황진이가 자신, 서경덕, 그리고 박연폭포를 포함한 것은 이와 같은 황진이의 자의식이 투영 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박연폭포를 여겼기 때문이며, 이에 <박연폭포>와 같은 한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작가론적 관점에서 살펴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은 황진이의 일화를 통하여 기녀로서의 삶을 알고, 한시를 통해서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펴보아 이를 바탕으로 시조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교육 방안은 황진이의 시조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작품론적 교육 방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황진이 시조를 효율적으로 교육하는데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3. 수용론적 관점에서 본 황진이 시조 교육 방안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는 것은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함으로써 문학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단순히 작품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구체적인 자신의 삶에 투사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학 활동으로 나아갈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학 활동을 교실로 한정하지 말고 일상생활과 연관지어야 하고, 경험과 매체의 다양성을 문학 활동과 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⁴¹⁾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황진이의 시조를 작품론적 관점과 작가론적 관점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용론적 관점의 학습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용론적 관점의 학습 방안은 사대부 시조와 기녀 시조의 비교를 통해 살펴 본 작품론적 관점의 교육 방안과 황진이의 일화, 한시 작품을 통해 살펴 본 작가론적 관점의 교육 방안을 바탕으로 한다. 수용론적 관점의 학습 방안은 황진이의 작품과 작가에 대한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함으로써 새로운 문학 활동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 되도록 한다.

본 장에서 살펴 볼 수용론적 관점의 교육 방안은 첫째, 그 간에 대중 매체에서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황진이의 시조 교육 방안을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현행 교육과정 시조 교육에서 황진이의 시조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학습되고 있지만, 대중 매체에서 황진이의 모습은 작가로서의 모습보다는 기녀로서의 화려한 삶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황진이의 기록이 정사(正史)에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패설류의 기록에 의해 전

41)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312쪽.

해지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기녀로서의 모습이 부각되어 영화와 드라마, 소설로 각색되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대중 매체에서 황진이에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2006년에 방영된 KBS 드라마 《황진이》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심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용론적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황진이 시조의 독자적인 특성을 창작 활동을 통하여 표현해봄으로써 정서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창작 활동을 통한 내면화 활동은 매체 자료인 드라마에서 비판해 본 황진이의 모습을 기녀로서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여성 작가의 모습까지 재창작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황진이의 시조 6수를 모두 제시하여 시조와 관련하여 창작 활동을 해 봄으로써 황진이 시조를 내면화하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매체 자료를 활용한 내면화 학습

황진이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드라마와 영화는 황진이의 남성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기녀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황진이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상업 매체에 의하여 화려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이 강조되어 황진이의 시문학에서 볼 수 있는 작가로서의 면모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006년 KBS 드라마 《황진이》⁴²⁾의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황진이의 삶을 살피는 과정에서 자아상실의 시대를 뚫고 나갈 새로운 해법을 찾고, 기녀들의 다양한 예술 행위를 강조하며, 사랑의 가치에 대한 재확인을 통한 ‘진정한 인간의 길’을 탐구하고자 한다.’고 하여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42) 연출 김철규, 극본 윤선주, 출연 하지원, 김재원.
홈페이지 www.kbs.co.kr/drama/hwangjiny/, 2006.10~2006.12월 방영.

모습 중에서 예인(藝人)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영화 《황진이》⁴³⁾의 제작 의도는 ‘북한 소설가 홍석중의 원작을 영화화하여 봉건제도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를 꿈꾸는 조선시대 한 여인의 삶을 그리고자 한다.’고 하여 조선 시대의 여성으로서, 기녀로서의 삶을 조명하여 황진이의 주체적인 면모를 그려내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황진이의 여성 작가로서의 삶보다는 기녀로서의 예능적인 면모와 신분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 매체의 속성 상 황진이의 모습을 작가로서의 모습보다는 기녀로서의 화려한 모습을 강조하여 대중의 이목을 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선 시대 관기로서의 실상과 황진이의 모습이 모순되게 그려지고 있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역사의 실체와 드라마나 영화의 관계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황진이의 모습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장에서는 드라마와 영화에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대중 매체에서 기녀로서의 모습만이 강조되어 그려진 황진이의 모습을 여성작가 황진이로 재조명하여 황진이의 시조 문학을 내면화 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43) 감독 장운현, 출연 송혜교, 유지태, 관람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홈페이지 www.hwangjiny-movie.com, 제작 씨네2000, 배급 시네마서비스, 2007. 6월 개봉.

▶ 드라마 《황진이》에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 비판하기

▶ 목표학습

1. 다음은 하지원 주연의 2006년 KBS 드라마 《황진이》의 기획 의도이다.

이제 '황진이' 를 말한다.



첫째, 이 드라마는 여성과 신분의 차별이 엄연했던 시대, 그 편견을 당연시 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던 여성 황진이의 삶을 살피는 과정에서 점점 수동화 되어 가는 사회, **자이상실의 시대를 뚫고 나갈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

둘째, 이 드라마는 여자들의 이야기다. 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세상을 힘겹게 살아간 여자들. 그러나 또한 남자들의 이야기다. 차별이 아니라 사랑을 꿈꾸었던 그런 남자들 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세상이 지시한 길이 틀렸으면 반기도 한 번 들어볼 만하다. 크게 외쳐도 좋다. 차별하는 이나 차별받는 이나 자유롭게 못하기는 매 한가지라고. 조화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리하여 조화는 차이는 인정하되 그를 차별하지 않는 열린 구조를 살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얘기를,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데서 같다는 얘길 해 보자.**

셋째, 교방을 중심으로 살아간 황진이를 비롯한 기녀들은 시서화와 음률은 물론 나아가 춤에 능통한 **종합 엔터테이너**였다. 그녀들이 펼쳐 내는 다양한 예술행위들을 통해 우리 문화의 향기를 느껴볼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사랑의 가치에 대한 재확인을 통한 **'진정한 인간의 길'**을 탐구한다.

(1) 위의 기획 의도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 ① '황진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자.
- ② 드라마 《황진이》의 기획 의도에서 강조하는 황진이의 모습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 ③ 드라마 《황진이》에서 황진이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이야기 해보자.

(2) 드라마 《황진이》의 10회의 부분이다. 다음 드라마를 보고 난 후 대본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54. 산사 한적한 숲길 일각(낮)

진이 서둘러 오는데, 김정한 급히 따라와 그 팔을 잡는다.

김정한 : 함께 가세나.

진이 : (매섭게 눌러보고는 천천히 그 팔을 거뒀다며)돌아가 주시지요.

김정한 : 이보게, 명월이.

진이 : 아무리 재촉하셔도 뜻을 이루실 수 없을 겹니다.

김정한 : 자네 예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도 없나?

진이 : 책임감이라 하셨습니까?

양반님 네들은 참으로 편리하군요.

언제는 천출이라 금수만도 못한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예인이라 치켜세우며 책임감을 운운하십니다. 그러.

김정한 : 명월이, 조선의 소리는 말일세. 백성을 지극히 아끼는 마음.

그 애민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선의 소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네.

진이 :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김정한 :

진이 : 조선의 예악을 폐하겠다고 작심하고 눈감고 귀 막은 자예요.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소리는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정한 : (가) (힘 주어) 나는 진심의 힘을 믿네.

자네 손끝에 묻어, 음률로 살아날 그 진심이...

조선의 소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네.

진이 피식 웃고, 김정한 간절한 표정으로 그런 진이를 본다.

그러나 결국 가던 길을 가 버리는 진이.

참담한 표정이 되는 김정한.

(이 위로 들려오는 음악소리)

- ① 드라마 내용에서 ‘김정한’이 ‘진이’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말해보자.
- ② 드라마에서 황진이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지 《황진이》의 포스터와 (가)와 (나)의 대사를 참고하여 말해 보자.



(나) 부용 : 나의 절친한 지기였느니라. 내가 인정한 유일한 맞수이기도하고, 뿔보다 교방이라는 담장, 그 담장이 가두기엔, 너무 큰 예인이었다.

- ③ 작가가 드라마에서 강조한 황진이의 모습을 찾아 비판해보고, 대중 매체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창작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목표학습】 ‘드라마 《황진이》에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 비판하기’는 황진이 시조를 작품론적 관점과 작가론적 관점으로 살펴 본 후 매체 속에 드러난 황진이의 삶의 모습을 비판해 보는 활동이다. 이것은 대중 매체에서 관습화되어 표현되는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해 보고 작가로서의 황진이의 모습 찾기에 중점을 둔다.

대중 매체에서의 황진이의 모습은 남성 사대부의 환상적인 모습을 기록해 놓은 패설류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황진이의 작가적인 면을 파악하기 보다는 화려하고 매혹적인 기녀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KBS 드라마 《황진이》에서는 기획 의도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황진이의 모습을 ‘시서화와 음률, 춤에 능통한 종합적 엔터테이너’의 모습을 강조하여 기녀로서의 모습인 예인(藝人)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드라마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을 추리해보고, 드라마의 일부분을 감상한 후에 왜 이러한 모습이 강조되었는지 비판해 보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학습 활동 ‘(1) 위의 기획 의도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에서는 드라마에서 제시한 기획 의도를 읽고 드라마에서 강조하는 황진이의 모습을 찾고 황진이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 지 추리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드라마 《황진이》를 감상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대중 매체에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해 가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획 의도에서는 황진이의 화려한 기녀로서의 모습과 ‘자아상실의 시대를 뚫고 나갈 새로운 해법을 찾는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으로서 같다, 황진이를 비롯한 기녀들은 종합엔터테이너였다, 진정한 인간의 길을 탐구한다.’는 중심문장을 제시하여 드라마에서 표현될 황진이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다음 학습 활동 ‘(2) 드라마 《황진이》의 10회의 부분이다. 다음 드라마를 보고 난 후 대본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는 드라마 《황진이》를

직접 감상해 본 후 드라마에서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을 실제로 찾아보는 활동이다. 드라마 전편을 감상하고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황진이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일부분을 교사가 제시하고, 대본으로 다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드라마에서 황진이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지 《황진이》의 포스터와 (가)와 (나)의 대사를 참고하여 말해 보자.’, ‘③ 작가가 드라마에서 강조한 황진이의 모습을 찾아보고, 대중 매체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창작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를 살펴보면 이는 모두 황진이의 예인(藝人)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라마 10회 대본의 일부분은 명나라의 위협에 맞서 황진이에게 조선의 예악(禮樂)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드라마 《황진이》 포스터에 드러난 황진이의 모습은 화려한 기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가 황진이의 모습을 드라마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여성 작가로서의 황진이의 모습보다는 예인(藝人)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여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드라마라는 대중 매체의 속성 상 대중의 많은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황진이의 작가로서의 삶보다는 예인(藝人)으로서의 삶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 매체인 드라마에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해보는 학습 활동은 기녀로서의 모습으로 한정되어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을 여성 작가로서의 모습까지 확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준다. 텍스트 밖의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하는 활동은 황진이를 여성 작가의 모습으로 재창작 할 때의 바탕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 시조 교육 방안을 통하여 여성 작가로서의 삶을 산 황진이의 모습을 상기시켜 보는 것은 황진이 시조 문학을 내면화 하는 학습 활동이 될 수 있다.

(2) 창작 활동을 통한 내면화 학습

창작 활동을 통한 내면화 학습은 현행 교육 과정의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⁴⁴⁾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의 수용 결과를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 창의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문학 활동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작품 이해와 감상은 그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기존 지식 및 신념 체계와 만나서 새롭게 재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문학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내면화함으로써 문학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 제시하는 창작 활동은 작품론적, 작가론적, 수용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황진이 시조 문학의 창작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황진이 시조 6수를 모두 제시하고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황진이 시조를 통하여 창작 활동을 해봄으로써 내면화 단계에 이르도록 한다. 먼저 ‘드라마 《황진이》에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 비판하기’에서 황진이 모습을 비판한 결과를 가지고 황진이의 여성 작가로서의 모습으로 재창작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황진이 시조 6수를 제시하고 그 중 각 1수씩 선정하여 작가 황진이에게 편지를 써 보는 활동과 화답시를 지어 보는 활동을 통해서 황진이 시조에 나타나는 정서를 이해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창작 활동을 통하여 황진이를 여성 작가로서의 모습으로 재창작해보고, 편지나 화답시를 써 봄으로써 황진이의 시조 문학의 독자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4)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 창작 활동을 통한 황진이 시조 내면화하기

【목표학습】

1. 다음은 전해지는 황진이의 시조 6수이다. 이 시조를 읽고 작품론과 작가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황진이의 모습을 창조적으로 재구성 해보자.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져 우리 예어 가논고.
(『大東風雅』)

어저 내 일이야 그릴줄을 모로드나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트여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靑丘永言』)

冬至스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靑丘永言』)

山은 냇 山이로되 물은 냇 물이 안이로다.
晝夜에 홀은이 냇 물이 이실쏜야.
人傑도 물과 갓도다 가고 안이 오노매라.
(『靑丘永言』)

내 언제 無信하여 님을 언지 소곶관덕
月沉三更에 온 뜻이 전혀 업너
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낸들 어리 흐리오.
(『靑丘永言』)

청산리 碧溪水 |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一到滄海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하니 쉬여간들 엇더리.
(『靑丘永言』)

- (1) 내가 만약 황진이의 영화와 드라마를 쓰는 작가라면 황진이의 시조 작가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이야기 해 보자.

- 황진이의 여성 작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날 것.
- 황진이 시조를 선정하여 창작 배경을 일화 형식으로 제시할 것.

- (2) 다음 6수의 황진이 시조 중 1수를 선정하여 시조를 읽고 작가 황진 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보자.

- (3) 다음 6수의 황진이 시조 중 1수를 선정하여 시조를 읽고 그 시조에 답하는 화답시를 지어 보자.

【목표학습】 ‘창작 활동을 통한 황진이 시조 내면화하기’는 지금까지 작품론적 관점과 작가론적 관점에서 살펴 본 황진이 시조 문학을 종합적으로 내면화 학습 할 수 있도록 제시된 학습 활동이다. 각 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황진이 시조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학습 한 후에 황진이의 전해지는 시조 6수를 함께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내면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창작 활동을 통한 황진이의 시조 내면화 학습 활동의 첫 번째는 ‘(1) 내가 만약 황진이의 영화와 드라마를 쓰는 작가라면 황진이의 시조 작가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이야기 해보자.’ 이다. 이것은 드라마에서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수용론적 관점의 ‘(1) 매체 자료를 활용한 내면화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황진이의 모습을 시조 작가로서의 모습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한다. 드라마에서 강조한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예인(藝人)의 모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성 작가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며, 6수의 시조 중 1수를 선정하여 이 시조의 창작 배경을 일화로 표현해보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미 벽계수의 일화와 소세양의 일화를 통하여 황진이 시조의 창작 배경을 살펴본 것처럼, 황진이의 시조와 관련된 일화를 창작해 봄으로써 황진이 시조의 내면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삶, 여성 작가로서의 삶이 표현 될 수 있도록 작가론적 교육 방안이 활용 될 수 있다.

두 번째, ‘(2) 다음 6수의 황진이의 시조 중 1수를 선정하여 시조를 읽고 작가 황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보자.’는 황진이 시조 작품의 정서를 내면화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작품의 작가에게 편지를 써 보는 활동은 작품과 정서의 상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작품

의 내면화에 있어서 효율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자기 나름대로 편지를 쓰게 하되, 작품의 정서와 상황에 그 내용이 적합해야 함을 유의한다. 황진이 시조를 읽고 황진이에게 편지를 써 보는 활동을 통하여 황진이의 생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황진이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적 화자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다.

세 번째, ‘(3) 다음 6수의 황진이의 시조 중 1수를 선정하여 시조를 읽고 그 시조에 답하는 화답시를 지어 보자.’는 작품 정서의 내면화와 함께 시조 형식을 이용한 창작 학습 활동이다. 시조의 기본 형식에 맞게 화답하는 창작 활동을 통해 황진이 시조의 특성을 내면화 할 수 있다. 특히 서경덕의 시조 <므음이 어린 後尼>와 황진이의 시조 <내 언제 무신하여>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화답하는 시조를 통하여 서로를 그리워하는 정서를 더욱 절실하게 드러냄을 학습하였으므로 황진이에게 화답하는 시조를 통하여 황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것에 화답하는 시조를 지어볼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창작 활동을 통한 황진이 시조 내면화하기’의 학습 활동은 작품론적 관점, 작가론적, 수용론적 관점의 교육 방안이 모두 포함되는 종합적인 학습 활동으로서 황진이 시조의 문학적 특징과 삶의 모습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용론적 관점에서 대중 매체인 드라마 《황진이》 속의 황진이의 모습을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황진이의 전해지는 6수의 시조를 통한 창작 활동을 통하여 황진이 시조를 내면화하는 교육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교육 방안은 작품을 통한 다양한 관점을 내면화하여 학습자 스스로 현실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개인적인 체험을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는 데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IV. 결 론

기녀 시조의 대표적인 작가라 할 수 있는 황진이 시조는 기녀 시조로서 여타의 일반 기녀 시조 및 사대부 시조와는 달리 인간이 가지는 정서와 애정을 세련되고 절제된 언어의 표현하여 황진이 시조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며 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인 위상을 바탕으로 현행 황진이 시조의 교육은 교과서에서 높은 수록 빈도를 나타내며 기녀 시조의 대표적인 시조로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 방안은 황진이 시조 작품의 독자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보다는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기녀 시조의 특징을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황진이 시조의 교육 방안을 현행 교육 방안의 가치를 수렴하고,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황진이의 시조 교육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였다.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이 황진이 시조를 현행 교육 과정에서 심화시키며 새로운 교육 방안을 통해 황진이 시조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있다는 데 밝히고, 구체적인 논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황진이 시조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II 장에서는 기녀 시조의 문학 교육적 의의와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양상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기녀 시조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내용의 측면, 표현의 측면, 문학사적 측면의 세 층위로 나누어 인간의 정서를 솔직 담대하게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하였다는 특징과 시조 작자 층의 확대와 더불어 시조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기녀 시조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양상을 황진이 시조의 교육 현황과 일반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7차 교육 과정에서 기녀 시조 시조는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차별성을 강조하여 학습되고 있었으며, 황진이의 시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기녀 시조의 교육 현황 양상의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황진이 시조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교육 방안의 긍정적 가치를 수렴하여 작품론적 관점에서 본 황진이의 시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심화하여 작가론적 관점과 수용론적 관점의 새로운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작품론적 관점에서는 기녀 시조인 황진이 시조와 사대부 시조를 비교하여 공통된 제재를 가지고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성에 대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 기녀 시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황진이 시조와 일반 기녀 시조의 공통된 정서를 찾고, 이 정서를 표출하는 태도에 있어서 일반 기녀 작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작가론적 관점에서는 현행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일화와 한시 작품을 통하여 황진이의 기녀로서의 삶과 여성 작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하게 하여 황진이의 독자적인 시조 문학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론적 관점에서는 작품론적 관점과 작가론적 관점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중 매체에 표현된 황진이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여성 작가로서의 황진이의 모습으로 재창작해 보는 학습 활동을 통하여 내면화 단계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황진이 시조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교수·학습 방안은 황진이의 시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며, 일원적인 해석을 벗어나 작품을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음미

하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황진이 시조를 비롯한 시조 교육에 대한 교육 방안의 실제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그 적용 사례를 연구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 학습자의 참여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하)』, 지학사, 2004.
-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2004.
-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하)』, 한국교육미디어, 2003.
-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미디어, 2003.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하)』, 디딤돌, 2005.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디딤돌, 2005.
-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상)』, 두산, 2003.
-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두산, 2003.
-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상)』,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2. 단행본

- 강전섭, 『한국고전시가연구』, 경인문화사, 1995.
- 권일경 외, 『고전문학』, 천재교육, 2005.
- 김갑기, 『漢詩로 읽는 우리 문학사』, 새문사, 2007.
- 김덕현, 『시조문학교육론』, 박이정, 2004.
- 김명희, 『조선시대 여성 문학과 사상』, 이회, 2003.

- 김지용, 『한국역대여류한시문선 (上)』, 명문당, 2005.
- 김진영, 『고전작가의 품모와 문학』,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 나정순, 『한국 고전시가 문학의 분석과 탐색』, 역락, 2000.
- 박노준 편저, 『고전시가 엮어 읽기』, 태학사, 2003.
- 박을수, 『시와 사랑 그 그리움의 샘』, 아세아 문화사, 1994.
- 성낙은, 『고시조산책』, 국학자료원, 1996.
- 안대회,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능화, 『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 이혜순 외, 『한국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 이혜순, 『한국 고전 여성 문학의 세계 : 漢詩篇』,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영지, 『한국시조문학론』, 양문각, 1996.
- 이희승, 『고시조와 가사 감상』, 집문당, 2004.
- 전규태,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 정경섭, 『고전문학의 이해와 감상- 1. 시가』, 문원각, 2003.
-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소수록 읽기』, 문학동네, 2007.
- 정병욱 외, 『韓國詩歌文學研究』, 신구문화사, 1983.
- 정기철, 『고전시가 펴 올리기』, 역락, 2005.
- 정종대, 『풀어쓴 옛시조와 詩人』, 새문사, 2007.
- 조동일,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76.
- 조동일, 『조선문학통사 2』 (제4판) 지식산업사, 2005.
- 조동일 외, 『한국문학강의』, 길벗, 1994.
-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7.
- 한창훈, 『시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 허왕욱, 『고전시가교육의 이해』, 보고사, 2004.

허왕옥, 『생활 정서로 그려낸 시조미학』, 이회, 2003.
황충기, 『기생 時調와 한시』, 푸른사상사, 2004.
한국언어문화연구원, 『한국대표고전시가 2』, 빛샘, 1999.

3. 일반논문

김동욱, 「황진이와 허난설헌」, 『현대문학』, 1995.
김명희, 「기녀문학의 특질」, 『時調學論叢』, 第13輯, 韓國時調學會, 1993.
김용덕, 「黃眞伊時調論」, 『人文論叢』, 漢陽大學校 人文科學大學, 1982.
김용숙, 「황진이의 전기적 연구」, 『靑坡文學』, 淑明女子大學校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會, 1960.
박애경, 「기녀 시에 나타난 내면 의식과 개인의 발견」, 『인간연구』, 제9호, 카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2005.
성기옥, 「기녀 시조의 감성특성과 시조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5집, 월인, 2002.
안지영, 「기녀 시조의 시조사적 의미」, 『時調學論叢』, 第17輯, 韓國時調學會, 2001
윤영옥. 「황진이 시의 tention」,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80.
이병기, 「황진이의 예술」, 강전섭 편저, 『황진이 연구』, 창학사, 1985.
이화형, 「황진이(黃眞伊)의 시적 진실」, 『외대어문논총』,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1997.
이화형, 「기녀 시조를 통해 본 인간적 한계 인식과 극복 의지」,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00.

조윤제, 「黃眞伊의 時調와 韓國 詩歌의 傳統」,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68.

황순구, 「黃眞伊論」, 『論文集』, 大田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84.

허왕옥, 「문학교육으로서의 시조교육」, 『시조학논총』, 제17집, 한국시조학회, 2001.

4. 학위논문

김정미, 「황진이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김흥년, 「황진이 시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박영신, 「황진이의 문학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신미경, 「황진이 문학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윤민주, 「기녀 시조 시어의 특성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이현명, 「기녀 시조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정윤환, 「기녀 시조연구-사대부 시조와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5. 인터넷 사이트

<http://www.kbs.co.kr/drama/hwangjiny>

<http://www.hwangjiny-movie.com>

ABSTRACT

A Study on <Hwang jin-yi's poem> Teaching-Learning Plan

Park, Youn Hee

Major in Korea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shows educational value of Hwang jin-yi's poem and contributes to offer effective teaching methods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original feature of literature, the poem of Hwang's.

In this poem, Hwang jin-yi, as a prostitute, expressed her emotion with positive view of people's desire, unlike many other high official poems. To be sure, the Hwang's poem reveals affection and nostalgia as a topic. However this poem is different from others in the aspect of the ways to display the feelings.

In these reasons, Hwang's poem is learned frequently by many students. And the literature 7th curriculum considers it important and valuable work.

Now, we need to have new methodology in order to study the character of this creative poem. It is because that present curriculum deals with this poem compared to other poems of harlot's life.

This study shows teaching method in the work itself according to the recent 7th curriculum. Furthermore, we study the poem in the face of the point of view writer and reader. Firstly, in the view of the work, we stress the difference of its contents through comparison to other high birth poems. That is to say, we focused the Hwang's expressional ways. This means that we discuss the poem which is considered well in now curriculum in positive. Secondly, the method of Hwang's poem in the view of writer and reader can help students know the original feature in her poem. For example, students can understand the relation both people's life and literature by studying an anecdote of the work, through the life of Hwang jin-yi as both a prostitute and a female writer. After that, students can also come to internalization by critically analyzing the life of Hwang jin-yi which described in mass media.

To conclude, the studying of teaching method with Hwang jin-yi's poem can contribute to make profound and various activities in learning and creating the original literature as the poem of story of life as a prostitute.